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검토



濟州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金碩潤

2007年 8月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검토

指導教授 金 東 栓

金 碩 潤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金碩潤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8月

The Consider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The Tamna Cultural Festival

Seok-Yu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Dong-J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7.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Abstract	iii
I . 머리말	1
II . 탐라문화제의 변천과 역사 소재	5
1. 제주예술제 시기의 특징(1962~1964년)	5
2. 한라문화제 시기의 특징(1965~2001년)	9
3. 탐라문화제 시기의 특징(2002~2006년)	22
4. 탐라문화제의 특징 종합 분석	24
III .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활용 사례	28
1. 삼별초의 항쟁	29
2. 조천만세운동	34
3. 세화리해녀항쟁	38
4. 서련판관 및 김녕사굴	41
5. 만덕제와 만덕봉사상	45
6.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51
7. 불싸움놀이	54
IV .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한계성과 강화방안	58
1. 역사 소재 활용의 한계성	58
2. 탐라문화제의 역사성 강화방안	64
V . 맺음말	69
참고문헌	72

표목차

〈표1〉 제주예술제(1962~1964년) 주요내용 비교	8
〈표2〉 한라문화제(1965~1969년) 주요내용 비교	11
〈표3〉 한라문화제(1970~1979년) 주요내용 비교	16
〈표4〉 한라문화제(1980~1989년) 주요내용 비교	19
〈표5〉 한라문화제(1990~2001년) 주요내용 비교	21
〈표6〉 탐라문화제(2002~2006년) 주요내용 비교	22
〈표7〉 탐라문화제의 시기별 특징	24
〈표8〉 만덕제와 한라산신제의 내용 비교	25
〈표9〉 탐라문화제 핵심주제의 변천	26
〈표10〉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28
〈표11〉 만덕봉사상 수상자의 수상사례	48
〈표12〉 탐라문화제에 활용된 역사 소재의 한계성	58

Abstract

The Consider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in The Tamna Cultural Festival

Among local festivals, a historical cultural festival which makes use of historical materials transcends being merely a re-production of local historical events or facts as simplified topics. It becomes a festival with a clear purpose, featuring selective employment of historical materials.

Therefore a historical cultural festival is the venue in which people express their local identity and historicity based on locally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grounds. It makes use of the locally characteristic historical and cultural materials shared and acknowledged by the people. In such sense a historical cultural festival can be described as Korean history transformed into local culture.

Present thesis has chosen 'Tamna cultural festival' as research topic, in order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employment of historical and cultural materials in the Jeju area. Tamna cultural festival, the topic for present analysis, first began as 'the Jeju arts festival' in 1962, which changed its name to 'the Halla cultural festival' in 1965 and to 'the Tamna cultural festival' in 2002.

Present research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stival in terms of its historical materials, by largely dividing its history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which is the Jeju arts festival period (1962~1964), began in commemoration of the 5.16 military coupe. In other words its initiation was limited, since it was tarnished by a political purpose from the beginning.

This was followed by the Halla cultural festival period (1965~2001).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second period in the 1960s, some traditional materials, including folk performances, were added to the fundamental stance of the Jeju cultural festival as a purely artistic event. In the 1970s,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tendency to reconstruct national heritage and ethnic cultural assets, the festival makes an active use of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such as folk religion in order to establish its identity as a cultural festival. In the 1980s, most of the events become fixed. In other words, whenever a national event

took place in the Jeju Island, Halla cultural festival would participate as a side-show, resulting in the weakening of its self leadership. The 1990s is the period in which the festival becomes transformed into a locally led festival, influenced by the government's proclam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system'.

In this third period, which is also the Tamna cultural period (2002-2006), the abstract concept 'Halla' is replaced by a historical concept 'Tamna', characterized by the strengthening of the festival's historicity.

In chapter 3 of present thesis, by analyzing case examples for historical materials used in the Tamna cultural festival, investigation is made in terms of its limitations and achievements. As a result of analysis of such case examples, the study reveals a lack of historical evidences. This often results in the subjective and arbitrary judgment of historical facts in the process of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On the basis of such research results, apparent limitation of historical materials for Tamna cultural festival is examined, followed by suggesting of three future directions. First, there is a need for employment of a system which can ascertain historical evidences. In other words, instead of a temporary background check, a research system which includes installation of an evidence researching department under the auspices of festival staff 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organizations should be secured. Second, one must aim for educational effect of the historical materials. In order to transmit and develop local history, it is fundamental to understand local tradition and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s. Third, the need for a new development and employment of historical materials is also suggested. For its efficacy, items that are independent in nature, such as 'Worship Ceremony for Kim Man-deok and Man-deok Service Award', in fact need to be complemented in their contents. They also need to be fragmen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relations with the Tamna cultural festival in general.

key worlds : historical cultural festival, Tamna cultural festival, historical materials.

I . 머리말

지역축제는 각 지역의 오랜 역사 전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기본적 재료로 삼고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가 자발적으로 표출되는 소박한 행동에 의하여 생성되고 변천되어 왔다. 이처럼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은 두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서 지역과의 역사성 속에서 생성되고 전승된 전통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로서 전통축제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현 한국민속예술축제)’ 등을 비롯한 각 지역의 역사 소재를 활용한 문화행사 전반이 포함된다.¹⁾

지역축제에 있어서 역사 소재를 활용한 역사문화축제는 지방의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단순히 소재로 차용하여 재현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사회의 성격이 농경사회에서 도시산업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생활공동체에 기반한 자연발생적인 축제가 아니라 역사소재의 선택적 활용과 함께 뚜렷한 목적을 지닌 축제가 된다.²⁾

따라서 역사문화축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지역의 특징적인 역사 문화적 기반 위에서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소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표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³⁾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화축제의 소재로 활용되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소재는 역사상 인류가 생활하고 상상하는 과정에서 창조한 일체의 물질적·정신적 유산을 포괄한다. 예를 들면, 물질적 형태로는 고대의 건축, 역사적 정원, 고문화유적지와 문물 등을 포함하고, 비물질적인 형태로는 전통문화, 문학, 예술, 민속, 전통적 관습 등을 포함한다.⁴⁾

1) 이주영, 「백제문화제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p.14.

2) 이승수, 『새로운 축제의 창조와 전통축제의 변용』, 민속원, 2003, p.14.

3) 김지은, 「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적 특성 강화방안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p.10.

4) 권혁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방안」,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

이렇게 볼 때 전통문화나 역사 소재를 축제에 활용한 사례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축제의 효용성 가운데 하나인 지역 주민의 정체성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전통문화나 역사적 사건·사실 소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역사학의 시각으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려는 노력과 역사 소재의 축제 활용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지역의 역사문화축제를 지방사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역사학자들의 자성 속에서 지방문화의 성격과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시도됐다.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으로는 김지은의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적 특성 강화 방안 연구」가 주목된다. 이 논문은 공주와 부여에서 지역의 역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백제문화를 재조명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한다는 목적 아래 열리고 있는 백제문화제를 역사 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밖에 권혁태의 안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방안」은 안동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방안을 관광의 관점에서 연구한 것이며 이와 유사한 사회, 민속학의 관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흔하게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학을 전공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지방사 연구와 지역축제에 활용된 역사 소재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고찰하여 지방사와 축제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서적이거나 논문으로는 김병인의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나승만의 「전통축제의 현대적 전환 : 그 맥락과 쟁점 - 진도 영등 축제를 중심으로」, 이해준의 「지역축제와 문화관광자원의 연계방안」 등이 있다.

어떤 경우든지 역사문화축제는 그 지역의 역사적 자랑거리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한국사 연구자들이 해당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역축제의 역사적 소재를 찾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때문에 지방사 연구와 지역축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 소재를 바탕으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대부분 그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축제

의 역사적 소재에 관한 연구의 당위성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⁵⁾

그 이유는 역사문화 소재가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향수와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지역문화는 지역과 결합된 문화이며, 단순히 공간상에 산재해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의 숨결 속에 생동하는 문화가 지방문화이며, 이것은 지역의식을 통합시키는 지역정신의 표출이며 지역적인 삶의 방식이다. 때문에 유·무형의 역사문화 소재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역사문화축제는 지역의 문화 전통적 자긍심을 지역의 고유성으로 승화시켜 지역개발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⁶⁾

지역의 역사문화축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 속의 인물이나 그의 행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문화축제가 열리는 지역들은 행정 또는 군사 등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었다. 그런 점에서 역사문화축제는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방 문화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역의 역사문화축제는 지방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축제야말로 자칫 무의미한 소비적인 축제로 전락할 수도 있다.⁷⁾

이처럼 역사문화 소재가 제대로 지역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은 역사학의 연구 대상으로, 역사의 문화적 재해석을 위한 지역의 역사적 인물, 역사적 공간, 역사적 사건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역사문화축제를 지방사 연구와 연관 짓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지역 축제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역사 소재가 활용되고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관련된 연구 성과는 없다. 따라서 지역의 역사소재의 활용과 지역의 정체성과는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등 시론적이거나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제주지역 역사문화소재의 현재적 활용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탐라문화제를 선택하였다. 탐라문화제가 제주지역 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축제의 태동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5) 김병인,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민속원, 2004, p.19.

6) 권혁태, 앞의 논문, 2001, p.13.

7) 김병인, 앞의 책, 2004, pp.54~56.

일련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탐라문화제가 역사 소재를 주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역사문화축제로 부르는 어렵다. 탐라문화제는 종합행사 유형에 행사의 일부를 역사소재 활용의 장으로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분석 대상인 탐라문화제는 1962년 제주예술제로 시작되어 1965년에는 한라문화제, 2002년에는 탐라문화제로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의 변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는 예술제적 요소가 강하였고, 점차 순수예술과 민속예술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2002년부터는 전통 문화적 요소가 중심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제주예술제(1962~1964년), 한라문화제(1965~2001년), 탐라문화제(2002~2006년)가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탐라문화제 명칭의 변천에 따라 단계를 설정하여 특징을 살펴보고, 각 단계별로 역사소재 활용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여, 역사 소재의 활성화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였다. 즉 각 단계별로 활용실태에 나타난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축제의 발생 배경 및 추진 과정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그것은 본 연구가 축제가 지니는 다양한 취지와 기능 등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Ⅱ. 탐라문화제의 변천과 역사 소재

1. 제주예술제 시기의 특징(1962~1964년)

1) 제주예술제 이전 시기

제주예술제 시기에 대한 고찰에 앞서 바로 직전 시기에 추진되었던 문화축제의 역사와 함께 당시 이 행사를 주도했던 단체의 창립 배경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단체의 특성과 문화축제는 서로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1회부터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지부(이하 '문총지부') 주관의 제주문화제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도지부(이하 '예총도지부')가 주관한 제주예술제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예술단체의 결성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좌익 예술인의 결집체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고 이에 대항한 우익 문화예술인 중심의 '전조선문필가협회'가 1946년 만들어졌다. 이 단체는 좌익의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가 '조선문화단체총연맹'으로 변신하자, 1947년 다시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문총')'를 결성하여 새로운 단체로 발족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문총지부'가 1956년 10월 결성되었다. 다른 지역보다 늦게 결성되었지만 이념적 성향은 매우 강하였다.

이후 한국전쟁 휴전 시기에 '문총'은 내부 분열을 보이다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내려진 포고령 제6호에 의해 모든 문화단체가 강제 해산될 때 '문총지부'도 해산되었다. 잠시 공백기를 거치던 제주도내 예술계는 '제주문인협회' 등의 주도로 1962년 4월 '예총도지부'를 창립하였다.

해방 이후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향토축제는 1958년 '문총지부' 주도의 제주문화제이다.

당시 제주문화제의 취지문의 일부를 통해 그 문화제의 목적과 이념적 지향성을 엿볼 수 있다.

인류가 있어 문화가 싹트고 향기 높은 꽃을 피울 때 그것은 예술입니다. 이 나라 예술인과 문화인들은 일찍이 조국의 반공통일의 일익을 담당키 위하여 단결하고 쫓기하였습니다. 이제 이 고장에 문총지부가 결성되었고, 때는 바야흐로 전 세계가 반공 자유를 절규할 때 우리 또한 한 자리에 모여 지부 결성을 자축하고 이 고장 젊은이의 예술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나아가 반공문화전선에 참여하여야 합니다.⁸⁾

선언문의 목적은 행사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첫째, 문총지부의 결성 축하 둘째, 제주지역 젊은이의 예술향상 셋째, 반공문화전선에의 참여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시 작품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선언문에 내포된 내용이 어떻게 실현 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당시 제주문화제 프로그램으로 문학올림피아, 동화대회, 시낭독, 예술강연, 사진술강좌, 시화전, 영화상영, 민요시조창, 고전음악 등의 15개 행사가 그 목록에 올라와 있다. 이것만을 놓고 볼 때 피상적이지만 선언문의 첫째와 둘째 목적은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의 목적은 무형의 이념적 지표여서 그 성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3회까지 진행되던 '문총지부' 주도의 제주문화제는 주로 학생 중심의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내부의 갈등과 분열, 5·16 군사쿠데타 정부에 의한 단체의 강제해산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⁹⁾

2) 제주예술제 시기

다음으로 1962년 창립한 '예총 도지부'는 발족과 동시에 제주도 특유의 지방 예술문화의 계발과 향상을 목표로 종합예술제 성격의 제1회 제주예술제를

8) 김창민, 「문화의 지배와 지배의 문화-한라문화제의 사례」, 『문화과학』, 문화과학사, 1995, p.91.

9) 김창민, 앞의 논문, 1995, pp.90~92.

1962년에 개최하였다.¹⁰⁾ 당시 '예총 도지부'가 발표한 행사의 취지를 보면 행사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바로 '5·16혁명 1주년 기념' 행사로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제1회 제주예술제는 제주도 공보과가 주최하고 '예총 도지부'가 주관하여 5월 17~18일 이틀간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¹¹⁾ 이후 제주예술제는 3회까지 개최된 후 4회부터 한라문화제로 명칭을 고쳤다.

제주예술제는 순수한 예술분야의 행사였고 참여한 사람들도 예술문화인뿐이었기에 대회장은 예총도지부장이 맡았으며, 제주도지사는 고문으로 위촉되었다. 이렇게 제주예술인을 주축으로 예술분야의 행사로 치러진 제1회 제주예술제는 1962년 5월 17~1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제2회는 1963년 10월 11~13일, 제3회는 1964년 12월 1~20일 개최되었다.¹²⁾ 당시 언론은 제주예술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혁명 1주년을 경축하는 뜻에서 17, 18일 양일간에 걸쳐 예총 도지부 주관, 도공보과 주최로 베풀어지는 예술제는 16일 하오 3시 미국문화원에 마련된 미술전시장의 테이프를 금지사와 금지법원장 그리고 梁예총도지부장이 끊음으로써 그 막을 올렸다.¹³⁾

이처럼 '경축'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회 행사는 5·16 쿠데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음이 분명해진다. 정치적 목적성을 지닌 한계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문화제 이후 짧은 시기나마 단절되었던 예술활동의 명맥을 이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측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양면성을 지니며 예술인 중심의 행사였던 제주예술제는 제주도내 예술분야만의 행사가 아닌 제주도민의 축제로 확대시키기 위해 제주도 행정당국의 공감을 얻어 40~50종목으로 행사를 확대하는 등 도민 참여 범위를 넓혀 나갔다.¹⁴⁾

1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제주문화예술백서』, 1988, p.46.

11)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2004, p.37.

12) 김석범, 「지역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7.

13) 제주신보, 1962년 5월 18일.

1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지회, 앞의 책, 1988, p.46.

〈표 1〉 제주예술제(1962~1964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개최일시	주요 행사내용		소멸내용	핵심 주제
		이전내용	신설내용		
1회	1962.5.17 ~5.18	서제, 문학, 음악축전, 연극, 무용, 미술 전시		없음	없음
2회	1963.10.11 ~10.13	서제, 무용제, 음악, 연극상연, 시화전	미술실기대회, 제2회음악회, 무용발표회, 초중고학생대상백일장	미술전시	없음
3회	1964.12.1 ~12.20	서제식, 음악제, 무용제, 대학백일장대회, 연극제, 문협시화전, 미술실기대회, 입선작전	합동경축시가행진, 삼성사향제, 문학의밤문화영화제, 미협2인전, 민속놀이발표, 진도민요경창대회, 민속박물전, 민속화전, 직장친선노래자랑, 굴전, 신성수채화전, 신성디자인전, 우표전, 고화폐전, 제주문화원예능콩쿨전, 제주도개발강연대회	초중고학생대상백일장	없음

자료: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참조 연구자 재구성

위의 〈표 1〉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회와 2회의 행사는 대부분 예술장르 중심의 행사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회에 들어서면서 양적인 팽창과 함께 형식면에서 유형화 되는 구조를 지닌다. 현재의 탐라문화제 구조와 유사한 배열을 보여주고 있다. 합동경축 시가행진과 화합행사 유형이 새롭게 행사에 추가되면서 도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로 변화하려는 주최 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행사의 형식면에서 예술인들의 자족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의 출발이 결국은 행사 내용의 다양화를 불러왔으며, 제주의 역사 전통을 계승하는 삼성사향제와 전통민속놀이 유형 등이 행사내용으로 첨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삼성사향제의 도입은 행사가 거듭될수록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전체 행사를 관통하는 역사의식, 중심 소재, 핵심 상징의 부재에 따른 고민이 제주예술제 초창기부터 있었으며, 결국 탐라 정체성을 드러낸 행사로 삼성사향제라는 의례를 도입

하게 되었다.

이처럼 '예총 도지부'의 첫 제주예술제가 '혁명기념사업'으로 개최되었다는 것은 국가의 일방적인 정치적 목적 하나만으로 지역의 문화분야에 대한 개입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예술제의 목적이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통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행사의 내용은 예술제라는 이름에 맞게 문학,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등 5개 분야로 진행되었지만, 참가대상을 보면 학생들을 동원한 군사문화적인 성격을 보여주며, 도청 공보과와 공동으로 주최했다는 사실은 문화분야에 대해 행정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었음을 보여준다.¹⁵⁾

따라서 제주예술제의 출범을 통해 빛을 보게 된 탐라문화제의 초기 모습은 순수한 의미에서의 예술제 또는 문화제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당시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외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행사의 다양화를 추구했던 노력들은 행사의 내용과 형식, 나아가 지역 정체성의 모색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후 한라문화제로 변화되는 단초를 제공하기에 이른다.

2. 한라문화제 시기의 특징(1965~2001년)

행사 주최 측의 내적 고민의 결과로 순수예술제 성격의 제주예술제는 양적으로 행사를 확대하고 내용의 변화도 가져오게 되었다. 변화의 주요 내용은 전통적 요소의 강화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행사 명칭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주최 측은 행사의 내용과 형식에 맞는 명칭으로 한라문화제라는 용어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¹⁶⁾

15) 김창민, 앞의 논문, 1995, p.93.

16) 한라문화제라는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꾸는 결정과정에서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음을 초대 예총 지부장의 의견(『제주문화예술백서』)이나 12회 한라문화제 대회사(李昇澤, 『제주도』 61호, 1973, p239.) 제목에 '耽羅文化의 새로운 開花를' 등 각종 기록이나 평가의 내용에서 탐라 또는 탐라문화에 대한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총론적 이해를 위해 10년 단위로 행사를 묶어 기간 내의 공통점과 특징을 도출하고 부분과 전체의 행사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살펴본다.

단계 구분은 1단인 1960년대는 제주예술제의 관성이 남아있는 시기, 2단계인 1970년대는 새마을 운동 등 정치, 사회적 영향에 의해 문화가 규정받던 시기, 제3단계인 1980년대는 향토성 짙은 전통 민속 소재가 대거 등장하고 정착되던 시기, 1990년대 이후는 지방자치를 전후하여 역사성이 강화되고 독자성이 보장되는 등 정체성 확립에 주력했던 시기이다.

먼저 한라문화제 전체 기간의 행사를 통틀어 역사 소재와 민속 소재가 어떻게 분포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시기별 특징요인이 드러나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1) 1960년대

1965년 11월에 개최된 제4회 한라문화제는 '예총 도지부'와 제주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형식상으로는 이전 시기의 제주예술제와 달리 행정당국이 행사의 주최에서 빠져 외형적으로는 행사의 자율성이 한층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제5회 한라문화제부터는 서귀포에서도 행사가 개최되어 공간적인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형적 측면일 따름이며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행정당국이 집행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다. 재정자립도가 미미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내용은 당시 행사 담당자들의 회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문화제때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경비문제일 것이다. 문화공보부나 제주도의 보조금만 가지고는 행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도내의 인사들에게 찬조금을 얻게 된다. 그때마다 지역사회의 빈축을 받아왔다. 때로는 찬조금을 얻으러간 사람들을 걸인취급하기도 했다.¹⁷⁾

예전 예총 회원들만의 힘으로 열렸던 문화제전은 아담하기는 했으나 참 조출한 잔치였

17) 김영화, 「축제일로의 전환」, 『제주도』 제52호, 1971, p.497.

다. 행사경비 조달에서부터 장소 준비, 행사진행에 이르기까지 온통 예총 회원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 하찮은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범석이다, 행사종목에 부딪친다. 현수막을 걸고 무대를 꾸미고, 테이블을 마련하고, 대회기를 걸고, 모두가 회원들의 노고를 거쳐야 했다.¹⁸⁾

행사 명칭의 변화에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이전 시기와 어떤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제3회 제주예술제의 내용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표 2>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전통민속을 소재로 하는 유형 가운데서도 제4회 때부터 시작된 걸궁처럼 연회적 요소를 지닌 행사는 한번 생성되고 난 후에 지속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한라문화제(1965~1969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개최일시	행사내용		소멸내용	핵심주제
		이전내용	신설내용		
4회	1965.11.27 ~12.3	삼성사향제, 민속놀이발표, 민속박물전, 고화폐전, 민속화전	걸궁대회, 민속부	삼성사향제, 민속박물전, 고화폐전, 민속화전	없음
5회	1966.11.19 ~11.23	걸궁대회, 민속부	씨름대회	민속부	없음
6회	1967.11.4 ~11.9	걸궁대회, 씨름대회	없음	없음	없음
7회	1968.10.19 ~10.24	걸궁경연대회	민속놀이, 제주도민구전, 제주도문헌전	씨름대회	없음
8회	1969.10.23 ~10.27	걸궁경연대회, 민속놀이, 제주도민구전	없음	제주도문헌전	없음

자료: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참조 연구자 재구성

또 <표 2>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1회부터 계속되는 행사도 확인된다. 그것

18) 김영돈, 「한라문화제와 전통문화」, 『제주도』 제 67호, 1975, pp.331~333.

은 순수예술과 시가행진으로, 결국 행사 구성의 측면에서 식순에 따른 공식행사와 순수예술분야의 행사라는 일관된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속공연, 걸궁, 씨름 등의 전통소재가 도입되면서 향토문화제의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행사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삼성사항제가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상세히 검토하겠지만, 축제나 제전의 원초적 형태는 제의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활용된 의례적 요소가 부적절하다면 대체 의례가 만들어지거나 다른 상징의식이 새롭게 삽입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소재의 소멸은 행사 추진 주체가 축제와 예술행사, 놀이 등에 대해 개념 규정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가 추진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주최측이 행사를 보는 시각이 투영된 행사 용어의 사용 예에서도 알 수 있다. 예술제, 제전, 문화제, 축제라는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¹⁹⁾

다양한 용어가 사용된다는 점은 전체 행사를 이끌어갈 방향성에 대한 합의와 핵심 주제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예로서 이 시기에는 1970년대의 행사부터 나타나는 중심 주제가 전혀 제시되지 않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아래의 인용은 한라문화제 선언문이다. 이 선언문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의 섬으로 불리고 변방으로 소외받던 제주를 조국 남단을 지키는 의연한 섬으로 인식하려는 도내·외의 많은 관심이 있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한라는 탐라창생의 품고한 인격이며, 조국 남단을 지키는 의연한 기상이다.
우리는 이 장엄한 의지 앞에서 아흔아홉골을 분수하던 여신 설문대할망의 지맥
마다 창조의 숨결이 정명히 생동하고 있음을 안다. 사해의 시련은 거칠고 이념
의 열풍은 모질었으나 강인한 기상은 그 훈훈한 입김으로 우리의 비탄을 달래어

19) 이것은 행사 명칭의 변화과정에서도 나타나듯 00예술제, 00문화제로 변천을 했지만 축제로 개칭되는 과정은 없었다, 문화제란 축제적인 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지만 축제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구태여 표현한다면 축제분위기는 '풍속화'를 위한 보조 구실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것이다.(송상일, 「풍속화의 길」, 『제주도』 61호, 1971, p.250.)

왔다.(중략) 한라문화제는 제주도 정신의 발굴, 계승, 발전을 도모하는 창조의 축제로 발돋움하려는 의지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²⁰⁾

도내·외의 관심이 증폭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제4회 한라문화제가 열렸던 1965년 11월 27일자 '제주신문'에는 '전국 방송리에 10시 정각 국민 의례에 이어 최현식 예총도지부장의(중략) 개막연설이 있었다.(중략) ①홍중언 대회장의 개회사 ②「남해문화 중흥의 계기로 삼으라」는 요지의 박대통령 치사(강지사 대독)가 있었다. 현란한 형광등이 장내를 밝힌 가운데李국회의장이 치사를 끝내고 자작 축시로 「한라산」과 「서귀포」를 낭독(중략)되었다.'고 기사화 되고 있으며, 동년 11월 29일자 '제주신문'에는 '이날 공설운동장에 집결, 제여중고 민속무용단을 선두로 동문로터리를 거쳐 경연장으로 들어오는 사이의 연도에는 헤아릴 수없는 인파가 들끓었고 관덕정 광장으로 입장이 끝났을 때는 본도 사상 초유의 2만이라는 인파가 휩쓸었다'고 보도하고 있다.²¹⁾

결과적으로 초창기 한라문화제는 여가문화가 활발하지 못했고 전통연회의 전승구조가 단절된 상황에서 출발 초기부터 국가의 지원에 의해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향토축제로 안착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행정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회적 조건에 의해 이미 확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주최의 민간 자율이라는 외형적 조건의 이면에는 대회장이 제주도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장은 예총 도지부장이 맡는 조직구조, 행사 경비도 제주도 예산에 미리 계상되는 등 행정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1970년대

1970년대는 전국적으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근대화를 통한 경제성장기에 돌입하던 시기다. 전국적인 사회현상으로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마을단위에 서는 축제를 이끌어갈 사람이 줄거나 축제의 규모가 축소되었다. 또 새마을운동

20) 김창민, 앞의 논문, 1995, p.93.

21) 김석범, 앞의 논문, 2004, p.9.

이 추진되면서 미신 타파와 정신 계몽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1970년대 말의 축제 현상 중에서 중요한 것은 전국 각지의 축제가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맞추어 개최되고 그 중에는 나라를 대표하는 축제, 즉 국가의 중요무형문화재라는 국민문화제가 출현했다는 것이다.²²⁾

박정희정권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호국문화유적의 복원과 정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로부터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민족중흥을 이룩하기 위해 호국유산뿐만 아니라 민족사상의 선현 유적과 민족문화유산의 복원을 시도하게 되었다.²³⁾

이러한 사회적 영향과 함께 제주지역의 한라문화제도 스스로의 반성과 정리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라문화제 10주년을 넘어서면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한라문화제가 전도민의 축제로 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과 참가자 일부의 행사에 지나지 않으며, 한계점을 보일 정도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반성과 함께 한라문화제의 중심행사 또는 대표상징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표상징의 부재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출범의 역사적 배경과 행사의 성격 규정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여전히 보완되지 못하고 지나쳐 온 결과였을 것이다.²⁴⁾

그렇다면 과연 당시 행사관련 단체 대표자는 한라문화제의 핵심주체의 부재, 상징의 부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관련된 내용만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번까지는 이것이다 하는 상징적인 행사가 없이 藝術·民俗에 치중되어오던 것이, 이번에는 徐隣判官 推戴와 蛇窟祭로 잡았다.²⁵⁾

유독 한라문화제만이 象徴을 내세우지 못한 채 가장자리를 맴돌고 있음은 불행한 일이다. 명칭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소지, 다음으로 '祭典의 核', 象徴을

22) 이승수, 앞의 책, 2003, pp.17~18.

23) 김병인, 앞의 책, 2004, pp.176~178.

2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 앞의 책, 2004, p.39.

25) 송상일, 「풍속화의 길」, 『제주도』 제61호, 1973, p.245

定立해 놓지는 못 했을까 하는 문제이다.²⁶⁾

무릇 한라문화제란 이름부터 너무 추상적이다. 문화제의 이름이 '한라산'으로 상징화 된다면 거기에는 현실성은 있어도 정서적인 진실성(문화적인)은 없는 게 아닌가 한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형태적인 심볼이지 정신적인 심볼이 아니다.²⁷⁾

지금까지 10회나 한라문화제가 베풀어 졌지만 이 문화제의 상징적인 그 무엇이 없다.²⁸⁾

특별간담회 자리에서 도지사는 이 문제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주적인 민속축제가 어떤 것이냐를 재발견하여 확실한 고증을 거쳐서 완전무결할 만큼 작품화시켜 나가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제주도 역사의 흐름 그 자체도 한번 엮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삼성신화에서 비롯된(중략) 생활풍속, 예를 들면 김녕사굴, 설문대할망 등의(중략).²⁹⁾

傳統文化祭의 行使種目的 設定은 또한 漢拏文化祭가 志向해야 할 大主題 定立 作業과 제시하면서 나가야 할 것임을 덧붙여 둔다.³⁰⁾

그렇다면 상징과 핵심 주제로 불리는 제주의 정체성을 행사에 친착시키기 위한 주최측의 고민의 결과가 역사 소재의 활용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표 3>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6) 고봉식, 「미린내에 여울진 탐라의 정혼」, 『제주도』 제67호, 1975, pp.335~336.

27) 한치문, 「한라문화제의 특색과 미래」, 『제주도』 제52호, 1971, p.492.

28) 김영화, 앞의 글, 1971, p.496.

29) 제주도, 「도민축제로 풍속화의 길」, 『제주도』 제68호, 1975, pp.554~555.

30) 김영돈, 앞의 글, 1975, p.334.

〈표 3〉 한라문화제(1970~1979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개최일시	행사내용		소멸내용	핵심주제
		이전내용	신설내용		
9회	1970.11.6 ~11.9	결궁경연, 민속놀이	한라산신제, 줄다리기	제주도민구전	없음
10회	1971.11.5 ~11.8	결궁경연, 한라산신제, 민속놀이(해녀놀이)	없음	줄다리기	없음
11회	1972.11.15 ~11.19	결궁경연, 한라산신제, 민속놀이(해녀놀이)	없음	없음	
12회	1973.11.11 ~11.17	결궁경연	사굴제, 민속가장행렬	민속놀이, 한라산신제	알찬 문화 풍요한 제주
13회	1974.10.26 ~10.28	결궁경연	민속예술	사굴제, 민속가장행렬	찾고 알자, 가꾸고 빛내자
14회	1975.10.18 ~10.20	결궁경연	민속가장행렬	민속예술	없음
15회	1976.10.8 ~10.10	민속가장행렬(절부암, 이여도)	민속놀이(탐라의 개벽)	결궁경연	없음
16회	1977.10.20 ~10.22	민속가장행렬(별방진), 민속놀이(관기주마)	결궁	없음	전통은 빛나게, 창조는 알차게
17회	1978.10.5 ~10.7	결궁(혼인지), 가장행렬(삼별초와 김통정, 김만덕, 최영장군의 목호도별), 민속	한라산신제	없음	살아있는 전통 문화 찾고 빛내 보존하자
18회	1979.10.17 ~10.20	결궁경연, 민속가장행렬, 민속놀이, 한라산신제			없음

자료: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참조 연구자 재구성

1970년대 한라문화제가 열리던 시절은 새마을운동의 영향이 사회일반에서 열병처럼 번져 나갔지만, 한라문화제에서는 오히려 미신타파의 대상이었던 민속

부분이 한라문화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주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해야 됨을 역설하게 된다.

즉, 제주도 지역문화의 발굴 선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속제의가 미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고 말할지 모르나 오히려 그것은 미신을 타파하는 계기가 되게끔 효과의 묘를 고려해서 다루자는 것이다.'³¹⁾라는 논리에 의해 미신타파와 활용이라는 모순된 구조를 지닌다. 사적인 영역에서는 척결의 대상인 무속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공개적인 환영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민속과 관련된 소재의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순수예술 행사는 정체 현상을 나타낸다.

앞서 상징과 관련하여 부지사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실제 그 고민의 결과가 행사의 내용으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한라산신제가 꾸준히 진행되어 그나마 명분을 살리고 있다.

어쨌든 한라문화제 전 기간을 통틀어서 중반기 초기인 이때는 내부 성찰적인 각종 평가와 대표 상징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에 힘입어 역사 소재의 활용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9회의 한라산신제, 제10회의 해녀놀이 등 민속놀이 유형의 경연, 제12회의 사골제와 민속가장행렬을 통해 역사 소재가 공개행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4) 1980년대

한라문화제가 어느덧 절반의 고비를 넘어서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행사가 고정되고 양적인 확장과 함께 내용적인 세밀함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요소로는 각종 전국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되거나 또는 연관성을 지닐 때에는 일종의 부대행사의 개념으로 한라문화제가 진행되어 긍정과 부정적인 요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긍정적인 요소는 전국행사와 연계됨으로 해서 좀 더 제주 지역적인 내용을 행사 전면에 내세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역사 소재를 다양하게 발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전국행사의 목적에 맞게 추진되면서 자기 주도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31) 한치문, 앞의 글, 1971, p.493.

초래하였다.

1982년 제21회 한라문화제부터는 이전에 행사 개최 날짜가 일정하지 않던 것을 '문화의 날'인 10월 20일을 전후하여 개최되었다. 그러나 전국행사와 연계되었을 때,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맞이 민속축전 시기(1986.9.2~9.13), 서울올림픽 성화맞이 제주(1988.8.26~8.28)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국행사의 일정에 맞춰 개최되다보니 자연히 준비 기간이 짧아져 내용적 소홀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행사의 내용 또한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으로 문화영역과는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협소하다. 그것은 국가주도의 행사에 지방의 문화축제가 부대행사의 개념으로 규정받게 되었음을 반증한다. 주최측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의 강요인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은 행정 또는 국가에 의하여 문화적 종속행위를 강제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성과적 특징은 민속 부분의 행사가 다양하게 재현된다. 전통문화 행사 체계의 정비를 위한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발전의 과정과 함께 외부행사 유입에 따른 제주적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에서 전통민속의 차용은 필연적이었다.

이 시기의 내용적인 면에서 중요한 특징은 역사적 인물인 김만덕을 추모하는 만덕제가 의례의 형식으로는 1980년 제19회 한라문화제에 처음 등장한 것이다.

이후 만덕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한라산신제와 더불어 한라문화제의 주요 상징행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제23회 이후에는 민속부분 행사가 확충되었고, 제24회 때는 민속경기에 학생부분이 신설되어 학생 참가의 범위 또한 넓어지게 되었다. 제12회 한라문화제 부터 핵심주제가 제시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주제는 '알찬문화 풍요한 제주'였다.

〈표 4〉 한라문화제(1980~1989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개최일시	행사내용		소멸내용	핵심주제
		이전내용	신설내용		
19회	1980.10.29 ~10.31		만덕제, 탐라민속제	걸궁경연, 민속 가장행렬, 민속 놀이, 한라산신 제	꽃피우자 전통 문화, 창조하자 새역사
20회	1981.10.14 ~10.16	만덕제	걸궁(차귀본향놀이), 시연(방앗돌굴리는 노래, 짐줄놓는 노래) 전통민속재현	없음	새의지로 문화 창달, 화합으로 복지제주
21회	1982.10.20 ~10.22	만덕제, 시연(산신놀이, 영감놀이), 전통민속재현	한라산신제	없음	새 시대에 꽃피우는 찬란한 한라문화
22회	1983.10.23 ~10.24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전통민속재현(영등굿)	없음	시연	빛난 얼 알찬문화 풍요한 제주
23회	1984.10.20 ~10.22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전통민속재현(칠머리당굿)	가장행렬(해녀놀이, 차귀본향), 시연	없음	빛나는 전통 꽃피는 문화 희망찬 제주
24회	1985.10.5 ~10.7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가장행렬, 시연(불싸움놀이), 전통민속재현(칠머리당굿)	없음	없음	꽃피는 전통문화 잘사는 제주
25회	1986.9.2 ~9.13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가장행렬, 전통민속재현(칠머리당굿)	없음	시연	빛나는 전통, 꽃피는 문화, 희망찬 제주
26회	1987.10.2 ~10.3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가장행렬, 전통민속재현(칠머리당굿)	없음	없음	빛나는 전통, 꽃피는 문화, 희망찬 제주
27회	1988.8.26 ~8.28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가장행렬, 전통민속재현(약마희)	없음	없음	빛나는 전통, 꽃피는 문화, 희망찬 제주
28회	1989.10.14 ~10.20	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연, 가장행렬	시연, 감귤축제, 바다축제(영등굿)	전통민속재현	

자료: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참조 연구자 재구성

4) 1990년대(2000년 이후 포함)

이 시기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기간이며 그 영향으로 문화행사에서도 이전 시기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95년 지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주도와 공동으로 주최했던 방식에서 예총제주도지회³²⁾가 단독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순수 민간 주도의 축제로 전환되었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³³⁾ 또 행사의 상징과 관련지어 축제라는 용어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이때부터 세부행사의 명칭이 전부 마을축제, 역사축제 등으로 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행사를 서귀포시에서 분산 개최하던 방식을 좀 더 확장하여 4개 시·군별 마을 행사를 도입함으로써 제주섬 전역에서 행사가 개최되어 행사장의 외형이 넓혀졌다.

외연의 확장과 더불어 역사 소재 발굴과 활용의 양적인 증가는 특별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미 행사의 틀이 고정되어 반복적인 진행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부분적인 변형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상징행사로 지속되던 한라산신제가 유교식 제의로 축소 집행되어 또 다시 중심행사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제39회(2000년) 행사부터 공식적인 세부축제 항목에 ‘제주역사축제’가 등장한 것이다. 당시 제주역사축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유적지탐방과 제주사학술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유적지 탐방은 탐라의 얼을 찾아서, 봉화로 지킨 역사현장, 외침의 역사현장 등의 내용 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의 또 다른 상징체계인 제주어 축제가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언어는 오랜 세월 공동체 구성원의 정신세계가 응축된 문화의 정수로 인식하여 제주어의 자원화를 위한 시도이며, 정체성을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핵심주제에 있어 제주문화, 삼다문화 탐라문화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축제의 성격과 방향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32) 예총제주도지부는 1986년 예총제주도지회, 2003년에는 예총제주도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33) 순수 민간주도라는 표현은 행사 주최측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주관 단위구성이 이전 시기와 내용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즉, 공공성 예산인 제주도일반회계에 계상된 경비를 주요재원으로 운용된다면 순수민간주도라는 용어가 어폐가 있으며, 설혹 행사 주도성에 방점을 찍고 단독 주최를 높이 평가하더라도 주관 단위가 예전과 같이 관계 기관의 대표자로 구성된 결정기구가 존재한다면 이 또한 내용상 민간주도라고 보기 어렵다.

〈표 5〉 한라문화제(1990~20001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개최일시	행사내용		소멸내용	핵심주제
		이전내용	신설내용		
29회	1990.10.23 ~10.31	전야제(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기, 향토축제(영등굿)		시연	
30회	1991.9.28 ~10.6	전야제(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경기	민속예술경연, 걸궁경연	없음	느영나영 한마당 제주문화 풍요제
31회	1992.10.17 ~10.24	기원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예술축제(민속예술경연, 걸궁경연), 화합축제(민속경기)	사투리 축제	없음	느영나영 둥그레 당실 제주 풍요제
32회	1993.10.9 ~10.27	기원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예술축제(민속예술경연, 걸궁경연), 화합축제(민속경기) 제주사투리축제	마을축제	없음	느영나영 둥그레 당실 제주 풍요제
33회	1994.10.1 ~10.25	개막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무형문화재 축제), 민속예술축제(민속예술경연, 걸궁경연), 민속놀이축제(민속경기) 제주사투리축제, 시군축제	없음	마을축제	
34회	1995.10.7 ~10.13	개막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민속예술축제(민속예술경연), 민속놀이축제(민속경기) 제주말축제	시.군축제	없음	느영나영 둥그레 당실 제주 문화 큰 잔치
35회	1996.10.5 ~10.13	개막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칠머리당굿), 민속예술축제(민속예술경연), 민속놀이축제(민속경기) 제주말축제, 시.군민속축제	없음	민속놀이 축제	느영나영 둥그레 당실 제주 문화 미래로
36회	1997.10.4 ~10.13	낮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초감제), 저녁축제(환송제), 밤축제(섬민속축제), 제주사투리축제, 시.군민속축제	없음	없음	정다위라 삼다 문화 - 흥겨워라 탐라잔치
37회	1998.9.22 ~9.30	개막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사투리축제), 민속예술축제, 지역별축제	없음	없음	정다위라 삼다 문화 - 흥겨워라 탐라잔치
38회	1999.9.11 ~9.17	개막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사투리축제), 민속축제, 지역별축제	없음	없음	정다위라 삼다 문화 - 흥겨워라 탐라잔치
39회	2000.9.28 ~10.3	기원대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전통축제, 지역별축제, 사투리말하기대회	제주역사축제	없음	새천년의 탐라 문화, 세계를 여는 제주
40회	2001.10.6 ~10.12	기원대축제(한라산신제, 만덕제), 전통축제, 지역별축제, 제주역사축제, 제주말말하기대회	없음	없음	천년의 탐라 문화 세계속으로

자료: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참조 연구자 재구성

3. 탐라문화제 시기의 특징(2002~2006년)

한라문화제를 탐라문화제로 개칭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행사 내용면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역사 개념의 도입과 연관지어 살펴 볼 수 있다.

‘한라’는 제주에 ‘한라산’이 있음으로써 외부에 손쉽게 홍보하는 긍정적인 요소지만 실제 제주의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삶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데는 거리감이 있다. ‘한라산’은 제주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대상물로서 항상 그 자리에 존재했던 상징적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선 ‘한라산’을 차용한 추상적 개념인 한라문화제에 대해서 정체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과정이 구체적인 역사축제분야의 신설과 맞물려 명칭을 탐라문화제로 변경하게 되었다.

〈표 6〉 탐라문화제(2002~2006년) 주요내용 비교

구분	개최일시	행사내용		소멸내용	핵심주제
		이전내용	신설내용		
41회	2002.10.5 ~10.10	기원대축제(한라산신제,만덕제),지역 별축제,제주역사축제,무형문화재축 제,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제주어 말하기대회	서제	한라산신제	천년의 탐 라문화! 세 계속으로
42회	2003.10.4 ~10.9	기원대축제(서제,만덕제),불신들의 축제,마을축제,제주역사축제,무형문 화재축제, 전통문화축제,예술축제,제 주어말하기대회	없음		동일
43회	2004.10.2 ~10.7	기원대축제(서제,만덕제),마을축제, 제주역사축제,무형문화재축제, 전통 문화축제,예술축제,제주어말하기대회	없음		동일
44회	2005.10.1 ~10.6	기원대축제(서제,만덕제),마을축제, 제주역사축제,무형문화재축제, 전통 문화축제,예술축제,제주어말하기대회	없음		동일
45회	2006.10.13 ~10.18	기원대축제(서제,만덕제),마을축제, 제주역사축제,무형문화재축제, 전통 문화축제,예술축제,제주어말하기대회	없음		동일

자료: 행사팸플릿 참조 연구자 재구성

이 같은 ‘탐라문화제’로의 개칭은 행사 외연의 확장과 시대적 요구인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과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라’라는 추상적 개념을 좀더 구체화하여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연결시키려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도입된 ‘탐라’ 개념은 행사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역사축제’ 분야를 강화시키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또 유적지 탐방, 역사 강연회, 고대 한·일 해로 페배 탐사항해 기록전, 박물관 순례, 선사인체험 등 제주지방 역사전통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지속적인 행사 운영 방식으로도 연결된다.

이 기간의 특징중에 하나는 행사기간이 10월 첫째 토요일로 고정되었다. 일정을 고정시킴으로서 도민들 누구나 예측 가능케 하여 참여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었다. 제45회는 탐라문화제는 첫 주에 추석이 겹치는 관계로 부득이 일주일 연기하였다.

그리고 <표 6>을 통해서도 확인하듯이 행사의 큰 틀이 고정되어 변함이 없으며 세부적인 내용만이 바뀌고 있다. 전체 행사를 대표하는 핵심주제 역시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속으로...’라는 주제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핵심주제가 고정되고 행사의 틀이 변동이 없다는 점은 완성된 형태의 축제로서 새로운 요소가 끼어들 여지를 차단한다.

탐라문화제의 중심 상징이 뚜렷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형화된 행사의 반복적 재현으로 ‘탐라’와 ‘제주역사’를 대표하는 중심소재의 발굴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시대적 조건에 맞게 새로운 내용을 찾으려는 시도를 방기하는 문제를 갖기도 한다.

형식을 고정화 시킨다는 문제는 활용되는 역사 소재가 지방사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을 때 가능 할수 있다. 지금처럼 여전히 해소시켜야 될 과제를 지닌 채로 고착화 된다는 것은 역사를 소재주의적 관점으로 활용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 행사 형식과 내용은 서로 충돌하면서 도민의 욕구가 반영되었을 때 지역의 역사적 전통은 창조적으로 계승 될 것이다.

4. 탐라문화제의 특징 종합 분석

탐라문화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내외적으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는지 시기별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제주문화제는 외적요인인 정치상황에 의하여 행사가 중단되었고, 역으로 제주예술제는 정치적 목적성을 띄고 개최되었다. 내적인 측면에서는 지역예술의 활성화라는 명분과 함께 예술인들의 자족적인 성격이 짙었다.

한라문화제 시기는 외적요인에 의해 전국행사가 제주에 유치되는 경우에 부대행사로 전락하여 독자성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특징을 보여준다. 내적으로는 상징행사가 부재로 인하여 행사 중심이 없이 부유하는 축제가 되고 있다. 그에 따른 방안으로 민속소재의 대거 발굴과 함께 전체 행사의 틀이 고정되는 시기적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해 부터는 실질적인 단독 주최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 축제의 도입과 함께 공간의 전도적 확산을 이룬다.

〈표 7〉 탐라문화제의 시기별 특징

시기구분		시기별 특징
제주예술제	제주예술제 이전	- 순수예술제 형식, - 문충도지부의 결성 축하, 예술향상, 반공문화전선 참여
	제주예술제	- 순수예술제 형식, - 5·16혁명 1주년 기념, 단절된 예술활동의 맥을 이음.
한라문화제	1960년대	- 외형적 독자성 성립, - 재정의 행정 의존비율 높은 - 예술제 중심 - 중심행사 도입 시도
	1970년대	- 민속소재를 활용한 역설적인 미신타파 계몽운동 - 순수예술제 정체현상 - 상징행사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
	1980년대	- 전국행사의 부대행사, - 민속소재의 확대 및 정착 - 행사의 큰 틀이 정착
	1990년대	- 지방자치도입에 따른 단독 주최, - 축제공간의 전도적 확장 - 제주역사축제 등장
탐라문화제	2001년 이후	- 개최 일정의 고정, 행사 유형의 고정 - 탐라문화제 명칭 사용

이제까지 탐라문화제의 변화 과정을 개최 시기별 특징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지금부터는 행사의 주요 항목별로 나누어서 특징적인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탐라문화제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징과 관련해서 한라산신제와 만덕제를 살펴본 후 행사를 대표하는 핵심 주제의 측면에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 8>을 보면 두 개의 행사가 오랜 생명력을 지니고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길게는 43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짧게는 27년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다. 행사에 도입된 배경 역시 두 개의 행사 모두가 전체 한라문화제의 중심 소재가 부재하다는 평가를 통해서 대안으로 준비된 행사였다.

<표 8> 만덕제와 한라산신제의 내용 비교

구 분	최초시작	내 용	장 소	횟 수	주 관	비 고
만덕제	1980년(19회)	만덕제 만덕봉사상 시상	모충사	27회 중 27회	제주도, 예총	부녀, 여고생 참가
한라산신제	1964년(3회)	한라산신제	산천단	43회 중 31회	고양부삼성사	

자료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과 행사 팸플릿 참조 재 구성.

김만덕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인물 성격인 근면함과 구휼 활동이 현대로 넘어 오면서 봉사정신으로 재생되어 만덕제 봉행, 만덕 봉사상 시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라고 하는 인물의 성격이 ‘근면’과 ‘봉사’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한라문화제의 중심 행사로 성장하는데 제약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형식면에서 여성 축제로 분리 독립시키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현재의 의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사업과 함께 계층별 참가를 유인 할 수 있는 유희적 요소를 첨가하는 등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반면에 한라산신제는 한라산신을 모시는 제사의 하나였다. 민간신앙이었지만 중국에서 유교식 제사 체계가 도입되면서 중요한 제사 대상으로 이어져왔다. 조선 초기부터 한라산신제는 논란의 대상되어 중단되었다가 이형상 목사의 건의로 공식적인 국가 제사로 채택되었다.³⁴⁾ 이를 소재로 활용하여 외형적 확장을 시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 한라산신제는 국가체제로 편입되기 이전에 민간신앙의 형태로 오랜 기간 존속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여 행사의 내용 구성에서 유교식의례방식과 함께 무속의 방식 등 다양한 현대적 변용 방안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표 9>은 한라문화제에서 탐라문화제로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행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 핵심주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9 > 탐라문화제 핵심주제의 변천

년 도	핵심주제
~35회 이전(1995년)	느영나영 둥그레 당실 제주문화 큰잔치
36회(1997년)~38회(1999년)	정다위라 삼다문화 ~ 흥겨워라 탐라잔치
39회(2000년)	새천년의 탐라문화 세계를 여는 축제
40회(2001년)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속으로

자료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과 행사 팸플릿 참조 재구성

한라문화제에서 탐라문화제로 명칭이 변화되는 전후 5년여 기간은 한라문화제가 양적인 변화 단계를 넘어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의 소재를 행사내부로 끌어들이는 시기이다. 그것은 제주의 역사를 탐라로 부터 승계하고 문화적으로 표출하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탐라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제주인의 삶의 흔적을 찾는 노

34)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國家祭祀」,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pp.194~195.

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표 9>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35회 이전 시기는 주로 '제주문화'를 중심으로 주제가 정리되고 있으며, 제38회까지는 '삼다문화'가 등장하여 '탐라문화'와 함께 쓰인다. 그 과정을 지나 비로소 '탐라문화'라는 용어가 쓰이기 시작하고 행사의 명칭도 탐라문화제로 바뀌게 되었다.

행사를 압축해 표현한 핵심주제가 '제주'에서 '삼다'를 거쳐 '탐라'로 이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제주는 현재적 시점이고 삼다는 시점이 불분명한 추상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물론 탐라는 역사성을 지닌 용어이고 제주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발점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핵심주제의 변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행사가 출발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행사로 전환을 요구받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탐라문화제의 역사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핵심주제의 선택에 대한 고민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행정자치권의 확대와 함께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천년의 탐라문화 세계속으로..' 라는 핵심주제가 고정·반복 사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민의 결과물은 제4회(1965년)부터 제40회(2001년)까지 37년 동안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그 맥을 이어오던 한라문화제를 2002년부터는 탐라문화제로 행사 명칭을 바꾸고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Ⅲ.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활용 사례

탐라문화제에 활용된 역사 소재를 분석하기에 앞서 개괄적으로 어떤 분야의 소재들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를 토대로 자주 활용되었거나 또는 전체 행사와 연관 지어 행사를 강화시키려는 목적이 뚜렷이 드러나는 역사소재를 추출하고자 한다. 추출된 소재는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그 취지가 적절하게 행사의 내용으로 수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아래의 <표 10>과 같이 탐라문화제에 활용된 역사소재를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먼저 시도하였다.

<표 10>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구 분	내 용
생활사	배내리는 노래, 출비는 흥애기소리, 멀치후리는 노래, 도깨질, 불미노래, 해너놀이, 제주도민구진, 방아돌굴리는 노래, 집줄농는 노래, 가파도멜통, 축항역시놀이, 사또놀이, 제주산담쌓기, 초가집짓기, 흙질놀이, 제주사투리, 제주 馬축제, 百種祭,
사건·사실	삼별초와 김통정, 김만덕, 최영장군의 목호토벌, 용연선유놀이, 만세동산의 합성, 제주목사행차, 고대 한·일해로 때배 탐사항해 기록전, 박물관순례, 제주역사강연회, 유적지탐방, 제주선사인들의 생활체험, 김만덕, 한라산신제, 삼별초의 난, 세화리해녀항쟁재현극, 애월진성에 얽힌 제주인의 얼, 제주항일운동의 요람 조천, 서판관추대, 천연사후, 불싸움놀이
민속	차귀분향놀이, 산신놀이, 영감놀이, 요왕맞이, 화반놀이, 연물놀이, 서우젓소리, 입춘굿, 영등굿, 포제재현, 전상놀이, 제주무형문화재재현(제주칠머리당굿, 제주큰굿, 갓일, 당건, 망건, 정동별립장, 허벅장, 제주불교의식), 신당탐방, 풍어제놀이, 조리회놀이, 날외소금맹글기, 흙싸움놀이, 금능리걸궁, 테우리소리, 병문교건립걸궁, 해신제, 꽃바구리 물통과는 과정재현, 잠녀혼 굿놀이, 귀리걸궁, 새왓이기는소리, 베령이 원담뎡거리기, 귀리걸보리농사일소리, 테우리코시, 정의골모물일소리
신화·전설	절부암, 이어도, 혼인지, 김녕사굴, 마라도 아기업개, 지장샘농부놀이
민속경기	물허벅경주, 집줄농기, 지게발경주, 조랑말경주, 듨돌들기, 등짐지기, 명석말아풀기, 잠수경연, 줄다리기, 옷놀이, 제기차기, 해산물캐기, 주뉘만들기

자료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과 행사 팸플릿을 참조 재구성

유형 구분은 생활사와 관련된 내용, 사건·사실, 민속, 신화·전설, 민속경기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본고의 핵심 주제인 역사적 소재의 활용과 관련해서 사건·사실이 중점적인 분석의 대상이지만 생활사와 관련된 내용도 역사연구의 참고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다. 민속과 신화·전설은 단일 항목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민속의 내용이 주로 제주의 무속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므로 이 분야를 신화·전설과 별도로 분류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구분하고 볼 때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분야는 민속과 생활사 관련 내용이다.

역사적 사건·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면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와 사건을 소재로 활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활용된 역사적 소재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는 지면의 한계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대표적인 예로서 ‘삼별초의 항쟁’, ‘조천만세운동’, ‘세화리해녀항쟁’, ‘서련판관 및 김녕사굴’, ‘만덕제와 봉사상’,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불싸움놀이’를 소재로 활용 한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삼별초의 항쟁

1) 역사적 근거

탐라문화제에서 삼별초의 항쟁을 소재로 활용한 사례는 제17회 한라문화제(1978년) ‘삼별초와 김통정 장군’과 제37회 한라문화제(1998년) ‘삼별초의 난’, 제40회 한라문화제(2001년) ‘향파두리에 얽힌 삼별초의 얼’, 제41회 탐라문화제(2002년) ‘애월진성에 얽힌 제주인의 얼’ 이 있다. 우선 사례 검토에 앞서서 삼별초 항쟁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삼별초의 기원은 명종 이후 치안과 질서가 문란하여 도적을 잡기 위하여 최우가 야별초를 설치하고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남으로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여기에다 몽고군에 포로가 되었다가 송환한 자를 모아 신의군을 만들면서

비로소 삼별초라 불리게 되었다.³⁵⁾

몽고의 침략에 의해 1232년(고종 19) 고려 조정은 유목민인 몽고군이 해전에는 약한 모습을 노려 강화도로 천도를 하였다. 1259년(고종 46) 화의를 성립시킬 때까지 무려 28년 동안에 일곱 차례의 침입으로 전국은 축대밭이 되었다. 원종이 즉위(1260년)하고 화의론과 항쟁론의 틈새에서 원종이 화의론으로 기울어 강화도 출륙을 명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삼별초군은 1270년(원종 11)에 남하하여 진도에 용장성을 쌓는다. 한때 해상왕국을 이루었던 진도 삼별초는 1271년(원종 12)에 여·몽연합군에게 함락되고 제주로 들어온다.³⁶⁾

이에 앞서 삼별초가 진도에 입성하고 해상활동을 전개하자 개경정부는 관리들을 여러차례 파견하여 환해장성을 쌓게 하고 제주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막강한 해상세력을 가지고 있던 진도정부는 1270년(원종 11)에 제주 수비군을 전멸시키고 제주에서 가장 수륙교통의 요지라 할 수 있는 조천포에 웅거한다.³⁷⁾

삼별초가 제주에 들어와 우선 주력했던 일은 방어시설의 구축이었다. 당시 구축된 성곽은 항파두성, 애월목성, 환해장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주삼별초는 1년여 동안 방어시설 설치에 주력한 뒤 1272년(원종 13) 부터 군사활동에 나서게 된다. 1273년(원종 14) 여·몽 연합군이 연합군 만명이 160척의 전함에 분승하여 삼별초를 공격해 들어갔다. 연합군은 외성과 내성을 함락시켰으며, 김통정은 70여명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했으나 오래지 않아 자결했다.³⁸⁾ 이로서 3년여 동안 이어진 제주 삼별초의 항몽활동이 막을 내리게 된다.

이처럼 삼별초와 제주민의 관계는 진도 함락 이전부터 이미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대부분의 제주민은 개경정부와 삼별초군 사이에서 관망하거나 중립적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일부주민은 삼별초 편에서 관군과의 전투에 참가하거나 호의적 행동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³⁹⁾.

삼별초를 보는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첫째는 ‘반역’이다. 삼별초의 봉기

35) 김충남, 「삼별초의 기인에 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p.13.

36) 김봉욱,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pp. 50~52.

37) 나중우, 「고려무인 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천도활동」, 『원광사학』, 원광대학교 사학회, 1986, p.81.

38) 에르테니 바타르, 「원·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 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85.

39) 제주도, 『제주도지』 제7권, 2006, p.256.

와 자의적인 국왕의 옹립이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반역이고, 왕조체제인 조선조에 있어서도 그 관점은 동일한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은 근대 초기 일제의 관학자들에게까지 계승되었다. 둘째는 '민족항전'의 관점으로 민족주의적 성격의 강조에 해당한다. 주로 근대사학의 관점이다. 셋째는, 부정되는 민족사적 의미로서 외세와 싸웠다는 것만으로 무인정권에 기생하던 군사조직을 민족적인 군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시각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⁴⁰⁾

지방사적인 관점에서는 제주 항전 초기에 삼별초는 제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을 받았지만 삼별초 주둔으로 인한 축성의 부담 등 삼별초와 전적으로 운명을 같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의 역사는 제주 나름의 관점에서 재정립해 나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⁴¹⁾ 비록 설화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지만 지네의 아들로 태어나 삼별초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김통정 출생담에 대한 설화는 삼별초와 김통정이 당시 제주민들에게는 영웅적 존재로서 환영만 받았던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김통정의 어머니가 처녀 때 밤만 되면 청의동자와 동품을 하는데 날이 갈수록 배가 불러간다. 그러자 동네 할머니들이 이를 알게 되고 다시 오면 명주실로 청의동자의 목을 묶어두게 한다. 날이 밝아 동네 부인들이 그 명주실을 따라 가 보니 그것은 지네였다. 김통정 장군은 그녀가 지네와 배합(配合)하여 태어났다는 얘기다.⁴²⁾

2) 소재의 활용

그렇다면 탐라문화제에서 작품으로 드러난 삼별초의 항쟁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행사 자료집에 나타난 공연의 연출 의도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한 자료는 제37회와 제40회, 제41회의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40) 윤용혁, 「제주 삼별초,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1회 박물관 문화강좌』, 국립제주박물관, 2002, pp.12~14.

41) 윤용혁, 앞의 글, 2002, p.17.

42)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p.451.

환해장성을 쌓으며 고통을 당하는 제주인들의 삶을 제주도 노동요 ‘달구질 소리’로, 삼별초 김통정 장군이 입성하여 성을 쌓는 과정은 마스게임과, ‘무예도보통지’의 민속 무술 기본동작으로, 여몽연합군이 성을 공략하는 과정을 ‘아기엿개 말도 귀 넘어 듣지 말라’는 속담의 유래가 된 이야기, 즉 연합군이 항파두리 토성을 공략하는 장면을 ‘불미질 소리’로 표현하였다. 여몽연합군과 김통정 삼별초군의 최후의 결전은 ‘기마전’으로 표현해 냈다. 마지막으로 김통정의 죽음을 제주도의 의식요 ‘상여노래’를 통하여 보여준다.⁴³⁾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항파두리 항목유적지는 일찍이 몽고의 침략을 받아 조국을 지키려고 궤기한 삼별초가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순의한 유서 깊은 곳이다. 이곳에는 아직도 삼별초와 김통정 장군의 기개가 살아 숨쉬는 듯한 흔적이 있다.

김통정 장군은 여·몽 연합군이 추격할 것에 대비하여 여러모로 지형을 정찰하여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에 이중으로 된 성을 쌓아 본성으로 삼았는데 (중략) 여·몽연합군에 비해 병력의 수효나 무기가 보잘 것 없었으나 삼별초는 이처럼 유비무환 자세로 끝까지 강화를 거부하고 투쟁을 계속하다가 이곳에서 최후를 마쳤다 한다.

그래서 40년간 끈질기게 항쟁했던 삼별초군을 기리기 위해서 항몽순의비를 세우고 (중략)

또 이곳 주변에는 아직도 김통정 장군과 삼별초군의 기개가 살아 숨쉬는 흔적이 있는데(중략)

이러한 항파두리에 얽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오늘을 사는 세대들에게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상징적으로 재현시켜 삼별초의 얼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한다.⁴⁴⁾

북제주군 애월읍 애월리 1737번지에 있는 이 진성은 둘레가 549자, 높이가 8자였으며, 남쪽과 서쪽에 문이 있었다. (중략) 이 애월진성은 원래 고려 원종 때 삼별초가 들어와서 고려군을 방어하기 위해 목성을 쌓았던 것을 1581년(선조14년)에 애월 포구로 옮겨 석성으로 축성하였다. (중략) 주적(主敵)이 누구

43) 제37회 한라문화제 팸플릿

44) 제40회 한라문화제 팸플릿

이든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집단적인 유비무환의 정신을 애월진성에서 배워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로 삼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성 쌓는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선조들의 얼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한다.⁴⁵⁾

나열된 세 개의 사례와 역사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여·몽연합군에 맞서 환해장성과 함께 애월읍 고성리에 이종으로 항파두성을 쌓았다는 제40회 한라문화제의 행사관련 기록과, 제41회 탐라문화제의 애월진성을 축조했다는 제41회 탐라문화제의 행사 기록은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또 성곽 축조의 시기와 규모가 사실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의 전개에 따른 관점과 수용의 문제에서는 세 개의 사례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수용되고 있다. 먼저 제37회 한라문화제의 내용에서는 역사적 사건의 전개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축성-연합군의 토성 공략-결전-죽음의 구조는 주관적 개입을 배제하고 있다

반면에 제40회 한라문화제와 제41회 탐라문화제의 경우는 ‘선조들의 얼과 삼별초의 얼을 후세들에게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재현한다.’는 문구처럼 올바르게 계승하는 부분과 선조들의 얼이라는 지점에서 주관적 해석이 강하다. 인용문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개가 살아 숨쉬는’, ‘유비무환의 자세’, ‘주적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삼별초와 김통정을 영웅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당시 대몽항전이 반드시 민족의식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생존권 수호 차원에 바탕을 두고 있었던 시대 상황과 앞서 살펴 본 근대 역사학계의 민족사적 관점 중에서도 국난극복사적 시각에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세 개의 행사 제목 중 하나의 공연에서는 ‘삼별초의 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난’이라는 용어는 어쩌면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제주민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난’은 전쟁이나 재변(災變) 따위로 어지러워진 상태로서 주체에 의해 형성되어진 상황이라기보다는 타의에 의해 만들어

45) 제41회 탐라문화제 팸플릿

진 사건으로 바라보는 성격이 짙다.⁴⁶⁾

반면에 다른 2개의 주제는 ‘항파두리에 얽힌 삼별초의 얼’, ‘애월진성에 얽힌 제주인의 얼’로 제시되고 있다. 보통 ‘얼’은 ‘혼’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삼별초는 곧 제주인의 혼으로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인이 자발적으로 사건에 개입하고 그 결과 또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있음이다.

결과적으로 삼별초와 김통정은 해석에 따라 제주도민들에게는 여·몽연합군이나 동일한 대상, 또는 혹독한 수탈의 주체로 인식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제주를 상징하는 ‘얼’로도 수용되는 이중적 역사인식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삼별초의 난을 국가사적 또는 보편적 관점에서 보는 의의와 지역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반드시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중앙중심 사고를 표 현하고 있다. 더구나 1105년 탐라군이 설치되며 고려에 복속된 지 170여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탐라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어느 정도 가능했을 것이며, 그에 따라 삼별초와 여·몽연합군을 대하는 태도 또한 분명히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소재로 하는 문화축제에서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때 소재에 따라서는 지방사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 등 좀 더 치밀한 부분의 연구와 역사적 고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새로운 시도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변용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2. 조천만세운동

1) 역사적 근거

제주지역 항일운동과 연관된 대표적인 사건인 조천만세운동은 제27회 한라문

46) 사전적 의미는 ‘난’은 ‘난리’로도 쓰이며, 전쟁이나 분쟁으로 세상이 문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움이라고 표현한다.(이승년 감수, 『새국어대사전』,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9, p.224.)

화제 때 ‘만세동산의 함성’, 제44회 탐라문화제에선 ‘제주항일운동의 요람 조천’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의 3·1운동은 대부분 서울거주 지방인이 귀향하면서 서울의 소식과 함께 독립선언문이 전달되면서 일어났다. 그렇다고 자연발생적으로 시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방의 주체적 역량이 일정정도 갖추어졌을 때만이 가능하였다.⁴⁷⁾

제주도 항일운동의 몇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항일운동의 일반적 성격은 1919년의 3·1독립운동 이후 계급의식의 각성과 사회주의 사상의 침투에 따라 노동쟁의, 혹은 소작쟁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로 제주는 계급적 분열이 없이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운동을 펼치게 된다. 둘째로 1920년대 후반부터 압도적으로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셋째로 운동내부의 파벌투쟁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운동이 연쇄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 이상의 특징과 함께 전국적인 운동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제주지역 항일 운동은 전개되었다.⁴⁸⁾

일제 강점기에 제주인들도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의 전면에 나섰다. 그 가운데 조천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에 참가했던 휘문고보의 학생 김장환이 숙부의 소상에 참가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준비하고 만세운동이 발생하기에 이른다. 숙부의 소상날인 3월 21일을 거사일로 잡아 조천리 동쪽 끝에 있는 미밋동산에 주민들이 집결하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독립 만세 삼창을 불러 조천리 거리를 돌아 신촌까지 시위행진과 구호를 외쳤던 사건이다. 이날의 1차 시위에 이어 3월 24일 까지 4차례의 시위가 있었다. 이일로 14명이 옥고를 치르게 되고, 이후 조천은 항일운동의 본거지로서 일제 당국으로부터 갖은 곤욕을 치르게 된다.⁴⁹⁾

조천만세운동의 특징은 운동의 주체는 주로 청년층이었으며, 거사일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림이었던 김시일의 소상일이었다. 독립선언의 최초 장소인 미밋동산은 마을공동체 신앙인 신당이 있는 곳으로 이 일대 지역주민들은 성소로

47)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 『제주지방독립운동사학술회의』, 제주도사연구회, 1995, p.23.

48)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pp.46~48.

49) 김찬흡, 「제주 항일운동」, 『제주도지』 제2권, 제주도, 2006, pp.644~645.

인식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인근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일부 어촌의 해상 시위, 서귀포 삼매봉의 만세시위가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운동 추진세력의 사상적 토대는 제주에 유배되었던 최익현의 척사론에 영향을 받은 김희정 → 김시우로 이어지는 이 지역 유림계통이었다. 이 운동의 영향에 의해 민족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조직되고 활동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⁵⁰⁾

2) 소재의 활용

‘제주항일운동의 요람 조천’의 경우 역사적 사건을 중심 소재로 다루고 있지만 단순하게 하나의 사건만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있다. 지역의 또 다른 역사소재인 환해장성과 현재 발생하는 국제 관계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만세운동이 지니는 일차적 의미를 넘어 제주지역 항일운동의 중심지라는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낸 만세운동의 역할을 표현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제44회 탐라문화제에 참가한 ‘제주항일운동의 요람 조천’의 행사를 중심으로 그 의도와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의도는 독립선언의 최초 장소인 조천 미밋동산은 예로부터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본향당이 존재하고 있어 성소로 인식되어 왔던 곳이다. (중략) 현재는 항일운동의 기념지가 되어 (중략) 이번 가장행렬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의 역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현 시기 한일 간에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도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구성은 마을본향당을 배경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요 기원-생산-왜구의 침략-환해장성 쌓기-일제의 침략-만세운동-독도문제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구성되었다. ⁵¹⁾

사건의 전후 배경과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 된 ‘제주항일운동의 요람 조천’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성소로서의 의미를 지닌 공간의 특징과 만세운동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사실에 충실한 구성이다. 반면에 사상적 기반이 유림세력의 영향에 있

50) 김동진, 앞의 글, 1995, pp.25~42.

51) 제44회 탐라문화제 팸플릿

는 청년조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환해장성을 소재로 반외세라는 주제 의식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환해장성이 갖는 의미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왜적의 침입을 막는 기능도 수행했지만 처음엔 삼별초에 맞선 고려군의 방어수단이었으며 이후에는 역전되어 삼별초군이 고려군을 방어하기 위한 장성의 기능을 수행했었다.

사건 당시에 만세운동으로 인한 지역민이 겪은 갖은 고통이 이후에 항일운동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때문에 항일운동이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을 수용하여 현재의 갈등구조인 한일 간의 관계망까지 역사인식의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채택해 볼 만하다.

지역에 존재하는 역사유물과 유적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역사유적이 순기능만을 수행했을 것이라는 주관적 판단 오류는 피해야 한다. 역사적 사실은 부정적인 요소를 내포하는 경우와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하는 경우 모두 지역민에게는 중요한 교훈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교육적 목적을 내세우기 위해 역사소재의 확대 재해석과 현실적 적용은 필요하다. 대신에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전제로 확대해석이 되어야 한다.

어쩌면 이질적인 전통적 신앙체계와 유럽의 기반이 3·1운동이라는 역사공간 속에서 함께 만날 수 있었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3·1운동은 조천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여러마을 주민이 함께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이라는 관점도 유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주지역에 끼친 역사관계에 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의미 파악을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의 의미를 넘어 주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를 수용할 수 있는 탐구가 병행되어야 자긍심이 형성될 것이다. 이는 다만 문화적 행사에 역사소재를 활용한 측면을 넘어서서 그 자체가 현재적 삶의 지형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기능으로서 또 다른 역사정립의 과정으로서의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세화리해녀항쟁

1) 역사적 근거

지역의 다층적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채택하여 제41회 탐라문화제에선 '세화리해녀항쟁'이 재현되었다. 세화리해녀항쟁은 항일운동사와 여성운동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의 여성항일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화리해녀항쟁의 역사적 배경은 20세기 들어 제주도에서는 해녀의 물질이 본격적인 경제활동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에 맞춰 해녀들의 물으로 나가는 바깥물질이 점차 많아지기에 이른다. 바깥물질에서 해녀들의 권익을 가로채는 무리들이 발생하였으니 일본인 무역상 밑에서 제주해녀를 모집하고 생산품 판매를 알선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객주이다. 이들 객주는 일본 상인과 결탁하여 저울눈을 속이든가 채취물의 일부만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착취를 일삼게 된다.

이러한 횡포에 맞서기 위해 1920년 4월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이 창립된다. 설립 초에는 채취물의 공동판매제를 실시하여 객주의 중간 착취를 막을 수 있었다.

이처럼 창립 당시의 목표를 일부 실현하기도 하지만 그 조합장을 제주도사가 겸임함으로써 조합의 성격이 점차 어용화 되어간다. 결국 하도리에서 해산물 판매를 둘러싼 부정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헐값에 해산물을 매각할 것을 강요하는 처사에 분노한 해녀들이 조합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한다.⁵²⁾

해녀항쟁사건의 전개과정은 1932년 1월 7일 1차 시위는 세화리 장날을 이용하여 해녀 조합에 대한 성토를 하고 제주읍으로 행진을 한다. 이어서 2차 시위는 1월 12일 도사겸 제주도해녀어업조합장이 순시차 구좌면을 통과 할 날에 맞춰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한다. 1월 24일에는 해녀 500여명이 검거된 동료 20여명을 구하고자 주재소를 습격하여 경찰관을 부상시키고 기물을 파괴하기에 이른다. 1월 26일 이르면 경무국은 해녀투쟁의 배후에 '민중운동협의회'가 활동하

52) 김영돈, 「해녀항일운동」,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pp.287~292.

고 있었다는 혐의를 잡고 우도에서 청년 11명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다.⁵³⁾

이 사건은 구좌면·성산면의 6개 마을 해녀들이 관제화 된 해녀 조합의 횡포에 맞서 국내 최대의 해녀 항일 운동을 벌였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때 참가한 도민들의 숫자는 년 인원 1만 7,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검거된 사람만도 100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 최대의 항일운동이었다.⁵⁴⁾

2) 소재의 활용

탐라문화제에 나타난 세화리해녀항쟁의 취지에서 확인하듯이 연행의 성격을 역사 재현곳으로 부르고 있다. 역사 재현곳은 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을 재현하여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작용하거나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위이다. 취지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역사상 여성들이 전면에서 투쟁한 것은 세화리 해녀항쟁이 유일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도 여성들이 사회·경제적 역할과 위치 등을 볼 때 자신과 자신들의 생활공동체 내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에는 언제든지 전면에서 항거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민속놀이는 1932년 해녀항쟁을 재현한다. 일본인 도사 일행이 세화리에 사찰 나왔다가 세화리 장터에 집결한 시위대를 만난다. 세화리, 하도리, 행원리, 온평리, 우도 등에서 모여온 해녀들은 해녀조합을 통해 일본인 중간상인들이 해산물 값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데 강력하게 항의하며 싸움을 벌였던 해녀들의 항일투쟁을 재현하는 역사 재현곳이다.

전개과정은 앞풀이 및 등장 곳 - 열림곳 - 해녀항쟁재현곳(해녀마당, 도사 및 일본인 마당, 해녀항쟁) - 뒷풀이 및 퇴장곳으로 이루어졌다.⁵⁵⁾

세화리해녀항쟁은 순수한 여성집단에서 주도한 최대규모의 항일 투쟁이었고 역사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치열한 어민항쟁이었을 뿐더러, 일제강점기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평가 되어 한다.⁵⁶⁾ 그러나 단순한

53)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제주사연표 I』, 2005, pp.422~423

54)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2006, pp.632~684.

55) 제41회 탐라문화제 팸플릿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넘어 일제의 식민지 수탈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항일운동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한다. 이 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했던 해녀들이 야학을 통하여 당시 청년들에게 민족의식과 근대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받았다는 점이다.

또한 이 운동의 저변에는 소위 청년 민족운동가들의 활동 조직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이 해녀항쟁을 단순한 생존권 차원에서 항일운동의 단계로 끌어올렸다.⁵⁷⁾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객관적 표현과 함께 당시 주변 정황에 대한 종합적 연구·고증의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역사를 재현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의 전개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역사재현극의 의미를 파악해보면, 해녀조합의 비리와 악덕상인의 농간 등의 요소가 결정적으로 사건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의 역사재현은 되고 있다.

선행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건의 뒷면에는 청년민족운동가에 의한 조직화 작업과 야학운동⁵⁸⁾으로 넓어진 민족의식과 식견이 바탕이 되고 있다. 해녀와 함께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함께했던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역사적 재현은 특정 부분의 역사적 사실을 수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더구나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세화리해녀항쟁의 의미를 너무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자신들이 속한 생활공동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항거하는 어머니의 정형화 된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자칫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과 민족의 문제는 무시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다. 동일 사건에서 또 다른 역사적 가치는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의 경우 각개의 층위에 대한 부분적 관점을

56) 김영돈, 「해녀항일운동」,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p.302.

57) 박찬식,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pp.92~94.

58) 1920년대 초에 이르러 1면 1교라는 보통학교가 개설되고 그나마 남자아이 만이 보내지는 상태였다. 야학은 농한기나 야간을 이용하여 마을 향사에 모여 한글과 산수 등을 익히는 문맹퇴치운동이었다. 이 야학의 강사는 신진 청년들로서 민족의식이 강하고 1930년대초에 이르면 일본 노동현장에서 돌아 온 사회중의 운동가들이 야학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구좌면 동부 지구의 하도,종달,우도의 야학 활동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역사적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자칫 부분에 집착했을 경우 역사적 사건이 주는 본래적 가치 의미를 놓치게 된다. 그것은 역사를 소재주의적 입장에서 채택하는 결과를 낳는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여성운동의 성격과 항일 운동이라는 관점도 동시에 조망되었을 때 주체들의 생존권을 투쟁의 역사적 의미가 더욱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4. 서련판관 및 김녕사굴

1) 역사적 근거

소재 활용은 위한 역사적 근거는 서련(1494~1515년)은 조선조의 무신으로서 1513년(중종 8) 제주도에 도임하고 1515년(중종 10) 재임 중에 죽었다는 사실과 김녕사굴의 전설에서 비롯된다.

서련이 제주에 근무하던 당시의 제주목사는 김석철과 후임 성수재, 정건이었다. 전설에는 1515년(중종 10) 3월에 판관 서련이 김녕굴에 있는 요사를 죽였다. 그 지방민은 매년 초에 제사를 지내고 만 15세의 처녀로서 희생에 대신하였다.

서련이 군교 수십 명을 택하여 창칼, 신탄, 염초 등을 가지고 대망이 나타나 처녀를 삼키려 하자 창으로 찌르고 불태웠다. 또 일설에는 한줄기 붉은 요기가 쫓아오는지라 얼마 없어 관아에 이르러 정신을 잃고 쓰러진지 10여일 만에 관에서 죽었다.⁵⁹⁾

1972년 발행된 『제주도』 제54호에는 서련 판관의 공덕을 기리는 비석을 새로이 마련하며 이전에 세워졌던 고비문을 소개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 비문의

59) 김찬흡 편저, 앞의 책, 2002, p.298.

구성은 전반부는 전설의 내용을 기록하고 후반부는 중국 오언절구 고사를 인용한 대목이 있다. 그 내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述 往跡□短는並書一絶句彌
孫郎行陰德 一劍並二難
鄴侯絶淫祀 千秋若不死

昭和十二年丁丑年

東隱 康共七 謹豎60)

비문의 내용은 '손랑이 음덕을 행하여 한칼에 두개의 난을 제하였고, 업나라의 제후는 음사를 끊어 천추에 이름을 남겼다.'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서런 판관의 덕행은 중국고사의 내용과 다를 바 없으며 요사스런 미신을 근절시킨 서판관의 공덕을 기리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2) 소개의 활용

이와 관련 된 탐라문화제의 행사는 제10회(1971년), 제12회(1973년), 제23회(1984년), 제44회(2005년) 때 찾아볼 수 있다. 제12회 한라문화제의 행사 내용은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제12회 한라문화제가 열리던 해인 1973년 『제주도』 61호에 수록 된 사굴제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서 김녕사굴제를 왜 한라문화제 행사로 끌어들이려고 했는지 그 의도를 확인 할 수 있다.

12회 한라문화제를 앞두고 崔부지사는 김녕사굴 전설을 소개로 한 사굴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고, 예총지부장은 사굴제를 한라문화제의 일부 행사로 거행하는 것이 행사의 성격으로 보나 행사의 규모로 보나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⁶¹⁾

60) 고응삼, 「관서런기념비」, 『제주도』 제54호, 1972, pp.325~327.

61) 송상일, 앞의 글, 1973, p.249.

즉, 김녕사굴 앞에 세워진 서련 판관의 공덕비를 세우게 된 동기와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추진했던 미신타파 정책을 연결 지을 수 있다. 즉 역사적 사실을 지역주민의 계몽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0여 년이 지난 제44회 탐라문화제 ‘사굴구렁이 퇴치놀이’에서는 어떻게 서판관과 김녕사굴의 전설을 수용했는지 당시의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구좌읍 김녕사굴 속에는 길이가 수십 척이 넘는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렁이는 바람과 비를 자유자재로 불러일으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므로,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처녀를 제물로 바쳐서 제사 지내 재앙을 막는 것이 큰 연례행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1513년, 제물로 결정된 처녀 부모는 딸을 내놓을 수 없다고 크게 반발하여 울부짖는데, 제물로 결정된 사연을 미리 알고 있는 딸은 오히려 부모님을 설득하여 안심시키고, 제물로 나가서 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19세 때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제주판관으로 온 서련이 관원들과 장사들을 대종하고 나타나서, 구렁이를 퇴치하여 제물이 된 처녀를 사경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천추의 한이 되었던 마을의 악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어려운 결단과, 이를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살신성인의 정신은 물론, 가난하여 시집도 못간 제물처녀를 시집보낼 것과, 그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약속하는 주민 복지의 목민관의 모습을 보여준 서련 판관의 모습은 비록 허구 일지라도 당시의 실정으로 미루어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⁶²⁾

내용을 요약하면 서련이 뱀을 퇴치하고-처녀를 구하여-시집을 보내고-주민 복지의 목민관으로 선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은 서련 판관이 조선조의 무신이며, 1513년(중종 8)제주도에 도입했고 1515년(중종 10) 재임 중에 죽었다는 내용이다.

62) 제44회 탐라문화제 팸플릿

반면에 설화적 요소는 서련이 뱀을 퇴치하고-처녀를 구하는 부분까지는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만 서련의 죽음을 뱀 퇴치 과정의 결과로 인정하는 추가 요소가 도입된다. 마지막 부분의 역사적 사실로서의 죽음을 설화적 죽음으로 대체하면서 역사적 허구를 보완하여 사실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 이면에는 몇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권력자의 의지로 뱀이라는 악귀를 물리치는 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관리의 당연한 의무이다. 그러면서도 관리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현실적인 의도와 도민의 신앙과의 갈등이 드러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목사나 판관이 음사를 철폐하자 그 요구들의 보복적인 흥협에 의해 목사나 판관이 패배한다는 구조를 갖고 있다⁶³⁾.

제시된 제44회 탐라문화제의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설화적 요소를 사실적으로 도입하는 방식도 아닌 것 같다. 앞선 시기의 행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계몽적인 목적성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1973년 제12회 한라문화제의 핵심 주제로서 사골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와 맞물리고 있다. 1970년대 당시는 새마을운동에 의해 미신타파가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김녕사골제를 통해서 목민관의 구습을 타파하려는 의지와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결합된 역사소재로서 활용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시대상황과 함께 고민되었을 경우의 시대상이 반영되는 문제이고 2005년에도 여전히 과거형의 역사인식이 유효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된다. 그것은 역사적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반성적 평가나, 아니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역사요소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때 도입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단지 정치적 목적에 따라 도입되었다면 역사문화의 정치적 수단화라는 비판을 모면하기가 어렵다.

63) 제주도, 『제주도지』 제7권, 2006, p.152.

5. 만덕제와 만덕봉사상

1) 역사적 근거

김만덕(1739~1812년)은 조선조 영조 때의 사람으로 탐라문화제에서는 만덕제를 여는 것과 함께 만덕봉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내의 뛰어난 여성 1명에게 상을 수여한다. 만덕제는 1980년 제19회 한라문화제 때 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해마다 유교식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그의 삶과 관련된 기록은 다수가 존재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가 만덕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기록으로서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등이 있다. 둘째는 만덕이야기를 작품화하는 경우로서 채제공의 「만덕집」, 정비석의 『명기열전』,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이 있으며, 한시로는 이가환의 「송만덕귀탐라」가 있다.⁶⁴⁾

김만덕의 일대기는 어릴 적에 부모를 모두 잃고 기생집에 의탁하여 생활하다가 의탁 된 집의 기녀에 의해 수양딸로 삼게 된다. 본래 양가의 소생이었지만 기생의 수양딸이 되었으므로 주변의 권유 등에 의해 기적에 등록하고 기녀의 일에 종사하게 된다. 행수기생까지 역임했던 그는 다시 양녀로 복귀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7,8년 동안 몸담았던 교방을 떠나 친가로 돌아오게 된다.⁶⁵⁾

양가로 돌아 온 김만덕은 제주시 건입동 산지에 객주집을 차려 제주의 특산물을 육지로 반출하고 육지에서는 생필품을 제주로 들여와 판매하면서 큰 부자가 된다. 제주는 1792년(정조 16)부터 1795년(정조 19)까지 4년 동안 흉년으로 제주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간다. 구호곡을 싣고 오던 배가 파선하여 침몰하는 등 제주 기민의 구호에 차질을 겪게 되었다. 이때 만덕은 전 재산을 내놓고 양곡을 사들이고 삼성혈과 관덕정 앞에 가마솥 10여 개를 걸어 온 도민을 구휼한다. 이에 대한 공으로 정조로부터 의녀반수를 제수 받는다. 그 내

64) 제주도,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2005, pp.8~17.

65)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은광연세』, 김만덕기념사업회, 2007, pp.16~24.

용을 묘비명에 새겨진 글을 통해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구 묘비문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教坊 縮衣損食 貲産滋大 歲在 正宗朝乙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 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 而已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舖馬便覽萬 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矚章立傳 雖古賢媛 盖未嘗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瞳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亦復奚憾 生于元陵己 未 終于當宁壬申 十月二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 二十一日立

● 내용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 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우 려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 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 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 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급기야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주었으니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리 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맛보지 못한 일이다.

70이 된 용모이건만 선녀나 보살을 방불케하였고 눈은 쌍겹눈으로 환하고 맑 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時采) 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원능(元陵 : 영조의 능으로 영조를 말함) 기미년(영조 15년)에 낳고 지금 임금(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었으므로 다음달에 7으니 무루에

장사하니 갑좌(甲坐: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의 무덤이다. 임금이 즉위하
신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⁶⁶⁾

이러한 그녀의 삶을 현재의 관점에서 정신적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의
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개척하여 유교적 신분질서 속에서의 법적 제도
적 불평등을 뛰어넘는 페미니스트로서의 가치이다.

둘째는, 상도에 입각한 부의 축적과 검소한 생활태도를 기반으로 나눔을 실현
했던 자본주의 정신을 실천했던 가치이다.

셋째는, 자선과 봉사의 의미를 넘어 시대변화를 읽는 통찰력으로 기업가 정신
을 구현해낸 여성으로서의 가치이다. 이처럼 김만덕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체
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녀의 삶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⁶⁷⁾

2) 만덕봉사상의 소재 활용

이러한 김만덕의 뜻을 되새기기 위하여 도민의 정성으로 1977년 사라봉 모충
사에 기념탑을 건립하고 1980년 제19회 한라문화제 때 부터 김만덕의 구휼정신
을 기리는 유교식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같은 시기에 제주도내 여성 1명에게
만덕봉사상을 수여해 오기도 했다.⁶⁸⁾ 현재 만덕봉사상을 수여하는 근거인 '제주
도 김만덕상 조례' 내용 중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제2조(수상대상) 김만덕상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상대상으로 한다.

- ① 김만덕 의녀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
- ② 자주·근면·박애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여성상 정립에 기여한 자
- ③ 사회봉사와 협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66) 사)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2007, pp.477~478.

67) 변종현,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은광연세』, 2007, pp.400~426.

68) 김찬흡 편저,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p.96.

2005년까지는 1명에 대해 봉사상만 수여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관련 조례를 개정, 수상자의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제인상을 추가하여 전국적으로 김만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에 수상된 만덕봉사상의 수상장의 수상내역을 분석하여 조레나 또는 김만덕이 추구했던 뜻이 어떻게 계승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총27회에 걸쳐 28명의 수상자가 만덕봉사를 수상했던 내용은 하나의 이유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소를 검토하여 수상되었을 것이다. 또한 개개인마다 수상사유가 약간의 편차가 있으므로 공통분모가 많은 주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그중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과 부차적인 요소를 동시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도표로 만들어 보았다.

〈표 11〉 만덕봉사상 수상자의 수상사례(2006년 까지, 총 : 28명)

수상사유	인원	수상시기	수상보조사유
역사적 사건 관련	3명	1회,2회,3회	항일 투쟁, 조국광복, 4·3당시 봉사
복지시설운영	5명	4회,9회,12회,13회,14회	후원금품 증정
여성단체 조직 및 활동	4명	5회,6회,15회,16회,17회,24회,27회	후원금품 증정, 사회봉사
후원금 지원	13명	10회,11회,19회,20회,21회,22회,23회,25회,26회,27회	사회봉사
기타	3명	7회,8회,18회	사회봉사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제공 자료를 연구자 재구성

69) 전문개정 2006.4.12 조례 제2569호.

위의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수상이유를 살펴보면 후원금품과 관련된 수상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 결과에서 김만덕이 지닌 거상의 면모는 시대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함께 사회의 모순을 뛰어넘는 여성운동가적인 가치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였던 결과와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역사속의 김만덕은 전 재산을 비롯하여 온몸을 내던지는 나눔의 실천을 했던 인물이었다면 도표에 나타난 결과는 이를 계승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여졌던 김만덕의 구휼 정신과 오늘날의 기부금품에 따른 수상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은 정신계승의 면에서 과연 올바른지 되물게 한다.

제주의 대표적인 여인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가적 가치를 단순하게 금전적 가치로 치환하는 계산 방식을 탈피해야한다. 수상 대상과 수상 내용을 폭넓게 수용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래야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인 평등성, 도전성, 문화성, 세계성을 현재적 시점에서 제주인의 정체성 제고, 사회봉사의 이념적 지향성 확보, 이웃사랑과 봉사의 중요성 교육과 진취적인 한국여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⁷⁰⁾

3) 김만덕제의 소재 활용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김만덕의 일대기와 함께 그 속에 내포된 정신적 가치를 고려하면서 현재 진행되는 만덕제를 비교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만덕제는 사라봉 모충사 경내 김만덕 묘탑 앞에서 거행된다. 봉제순서를 살펴보면 1. 봉제선언 2. 헌화 3. 점시례 4. 관세례 5. 참신례 6. 분향례 7. 초헌례 8. 아헌례 9. 종헌례 10. 진다례 11. 음복례 12. 사신례 13. 분축례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제관은 10명의 주로 여성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과 함께 집례, 대축, 찬인, 찬자, 사준, 봉향봉작, 봉로전작의 역할을 맡아서 의례를 집전하고 있다.⁷¹⁾

70) 제주도,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2005, pp.80~86.

7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제공, 제27회 만덕제 시나리오 및 제관현황, 2006. 10. 13.

주로 유교식 예법에 따라 ‘의녀반수 김만덕은 지금으로부터 210여 년 전인 조선조 정조19년 우리 고향에서 여러 해 계속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때 사제를 털어 기민들을 구출하신 자선가이십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훌륭한 정신을 이어받아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도민 모두가 온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봉제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사의 내용 어느 부분에도 추구해야 될 가치인 시대적 불평등을 뛰어넘는 요소, 상도의에 입각한 자본주의 정신 구현, 통찰력을 지닌 기업가의 태도 등이 수용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제관의 면모를 봤을 때 만덕이 일대기에서 나타났던 고아→기녀→양녀 복귀→기업가→구출→임금의 특별한 은혜로 이어지는 고난을 극복했던 제주의 여인상을 대변하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기녀라는 낮은 신분과 상인으로서의 활동 등 다양한 계층성을 지닌 그녀의 삶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결국 역사고증의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점검되었을지라도 오히려 현대적 재해석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그녀의 뜻을 오늘에 계승하는 방안을 구체화시켜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의 사례처럼 역사소재의 활용이 비록 본 행사와는 긴밀하게 묶여 있지 않더라도 역사소재 자체의 진실성이 있고 충분히 확장·분화될 수 있다면 역사소재는 본 행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여 독자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고증의 문제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과 함께 현재적 의미를 확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만덕제와 만덕봉사상은 탐라문화제를 통해 발굴된 중요한 역사소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지금은 탐라문화제의 일부 행사지만 활동의 내용은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만덕제는 초기 탐라문화제의 대표 상징행사로 출발했으면서도 탐라문화제와 전혀 별개의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다. 즉, 탐라문화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행사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탐라문화제를 통해 발굴된 중요한 역사소재로서의 의미는 지니고 있지만 탐라문화제를 위해서는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음이다.

따라서 탐라문화제 때 역사적 사실과 인물로서 김만덕을 새롭게 확장시키는 방안은 두 개의 경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하나는 초기 탐라문화제의 대표행사로 상정했던 취지를 더욱 강화시켜 탐라문화제의 중심축제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구조처럼 탐라문화제에서 갖는 의미도 퇴색되고 연관성도 낮아졌다면 독자적인 축제로 기획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여성상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찾아보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송모제로서 선덕여왕의 넋을 기리는 '선덕여왕송모제(대구)', '명성황후 추모제(경기 여주)' 등이 있다. '선덕여왕송모제'는 궁중의식과 불교의식을 함께 볼 수 있는 송모제로 치러지고 있는데, 선덕여왕송모회와 사찰인 부인사 신도, 부인사 주변 주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로 매년 음력 보름에 봉행되고 있다.

이처럼 만덕제의 경우 또한 도내 여성단체와 김만덕 기념사업회 등을 중심으로 21세기 제주여성의 역할 모델로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만들 수 있다. 그 시기는 여성 발전과 양성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여성주간(매년 7월 첫 주)'이나 3·8세계여성의 날 등 여성 행사와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1) 역사적 근거

제주도는 전남해안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어 다른 섬 지역보다 고립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고립성은 전통성 즉 문화적 잔존성으로 인해 제주도의 상고문화는 나름대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상고시대 구분은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무문토기시대-탐라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의 구석기 시대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와 연륙된 대륙이었다.⁷²⁾ 제주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2000~8,000 B.P.사이로 보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유물 유적이 발굴되고 있다.⁷³⁾

애월읍 빌레못 구석기시대 유적의 조사로 시작된 제주도에서의 고고학적 발굴 조사는 이제 4반세기를 넘어서고 있다. 1984년 제주시 용담동무덤유적, 1990년대 중반 한경면 고산리와 삼양동 유적을 통해서 고대문화의 상당 부분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보다 상고시대 제주도의 시기구분체계가 확립되었다는 점과 함께 각 시기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는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는 점이다.⁷⁴⁾

2) 소재의 활용

제42회 탐라문화제부터 도입된 선사시대 생활체험은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재연구소(이하 '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행사가 추진되었다. 원래는 2002년 문화재연구소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이전과 같은 방식의 독자적인 사업과 탐라문화제 역사문화축제의 일부행사로 년 2회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 행사는 2006년에 이르러 주관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기에 이른다.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행사의 취지를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제주도내 유일의 고고학 발굴기관의 유적 발굴 성과 성과물을 일반 도민에게 공유하는 체험행사로 준비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⁷⁵⁾

또한 2004년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보고서에는 가족 선사인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현재와 비교되는 자연친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나아가 부모와 자녀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리고 선사시대 탐라인들의 생활체험을 통해 제주문화유산은 현세대가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무한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72) 강창화, 「선사시대」, 『제주도지』 제2권, 제주도, 2006. p.45.

73) 제주도, 『제주사연표 I』, 2005, p.12.

74) 이청규, 「탐라<국>형성 전후의 제주도」,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2, p.5.

75) 제주일보, 2002년 8월 6일.

모든 행사들은 가족 또는 부족 단위로 진행하며, 추장과 부족장을 선출하고 이들이 주재하는 마을 회의를 통해서 공동작업을 벌이는 과정을 재현하는 구성을 보여준다. 자료집⁷⁶⁾에 따르면 선사인들이 음식은 어떻게 해서 먹었을까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지역 선사시대 유적인 상모리유적의 화덕 노출상태, 북촌리 유적의 갈돌과 갈판, 삼양동 유적의 토기 등 발굴된 유적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그릇을 제작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

이외에도 선출된 부족장을 중심으로 움집을 짓고 고인돌을 직접 운반하며, 전복껍데기로 칼을 만들거나 농기구를 제작하는 등 선사시대 생활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기획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강화군에서 선사문화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개최되는 강화고인돌문화축제와 비교하면 내용 구성 면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제주지역 행사가 선사시대 체험을 중심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화도 또한 원시테마행사를 중심 소재로 설정하고 있다. 거기에다 제주지역은 단일 행사로 진행되는 반면 강화는 무대공연 등 각종 부대행사를 좀 더 다양하게 펼쳐내는 등 규모의 차이를 통해서 단일 축제로 발전시키고 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제주의 행사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제주의 경우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강화고인돌 축제의 경우는 고고학적 의미 등이 좀 더 체계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채 축제이름과 축제의 내용이 달라 일반적인 축제와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⁷⁷⁾

전문 기관의 고고학적 발굴 성과는 역사의 단절된 맥을 이어주는 학문적 성과를 지니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관의 축적된 성과물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역사에 대한 탐색 욕구와 맞물려 선사시대를 체험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문과 생활을 접목시켜 지역의 정신적 동질성을 세워나가는 사례로 작용하기도 한다.

76)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엄마·아빠와 함께 선사인들의 생활속으로」, 2002.

77) 문화관광부, 『2005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2005, p.376.

때문에 선사인들의 삶의 모습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를 마련, 제주문화유산은 현세대가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무한한 자산이라는 기획과정의 목적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었다.

이와 같이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사례는 초기의 주최측이 의도했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충실하고 있다. 유적발굴기관의 연구 성과를 대중적으로 소통시키는 공간이며,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해 나가기 위한 교육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전문기관의 학술적 성과는 대중적으로 소통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역사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현재적 정체성을 형성시켜나갈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피교육자의 관점에서 친숙하게 역사를 이해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역사소재의 무거움과 학술의 진실성을 수용자가 흥미로울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생성이 가능하다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엄중한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존치의 의미가 확인된다면 재빠른 복원이 필요하다. 오히려 강화도의 사례처럼 확대 재생산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주관 단체의 사정으로 인해 행사 추진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에 전체 단위에서 새로운 주관 단체를 선정하여 행사의 취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7. 불싸움놀이

1) 역사적 근거

한라문화제 전 기간을 통틀어 전통민속을 소재로 차용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게 있어왔으며 오늘날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라문화제 이름으로 개최되던 당시에는 뚜렷한 정체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역사민속 소재를 활용한 행사가 증가 추세에 있었다. 일부 소재는 미신타파라는 역설적 의미를 지니고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전통민속 소재의 도입은

보편화 되었지만 불싸움놀이가 처음 등장한 1980년대의 특징은 한라산신제가 개막 상징축제로 개발하는 등 전통문화의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시기이다.⁷⁸⁾

전통민속 소재의 도입 과정은 문헌기록으로 찾아보기는 힘들고 지역에서 구비 전승 되는 설화나 사건을 소재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예에서 살펴 볼 불싸움놀이 또한 하나의 신당을 놓고 2개의 마을이 서로 신당의 관리권을 차지 하기 위해 다툼이 있었다는 구비전승에 근거하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따라서 문헌기록이 없을 때 역사민속 소재 활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2) 소재의 활용

불싸움놀이는 1983년(제23회) 한라문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이듬해인 1984년(제24회)에는 시연을 하게 된다. 이후 2001년에 다시 한 번 재구성되어 공연을 하기에 이른다.

불싸움놀이는 북제주군 조천면 와산리와 대흘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본향당신을 모셨던 당굿놀이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있다. 본향당신을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시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대립이 따르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들 두 마을에도 예외 없이 음력 정월보름이면 부락공동제 형식의 당제를 열어 한해의 길흉화복을 점치고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한편, 한 해 동안 당(堂)관리권을 바로 이 불싸움놀이를 통하여 가름했다. (중략)

이처럼 당신을 모시기 위한 마을간의 평화적·선의적 대결은 주민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한편, 마을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이 '불싸움 놀이'가 조천면 와산리에 구전되고 있으며, 본도의 많은 전통민속놀이 중에서도 매우 희귀한 예라고 하겠다.⁷⁹⁾

불싸움놀이는 북제주군 조천읍 와산리의 웃동네와 알동네 주민들 사이에 있었

78)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발전계획, 2004, p.41.

79) 제24회 한라문화제 팸플릿

던 본향당에 대한 갈등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전에 와산리는 웃동네와 알동네에 각각 당이 있었으나 웃동네의 당이 불타서 없어져버리는 바람에 알동네 제석불도할망당 옆에 같이 모시게 된 것이다. 본향당신은 두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시고자 하니, 자연히 본향당에 대한 관리를 놓고 여러 가지 갈등과 의견 대립이 따르게 된다.

이와 같은 지역 주민의 제보에 바탕을 두고 연극놀이 형태로 재구성된 것이 '논흠 하늘 불싸움 놀이'이다. 즉 과거에는 있었다는 일부에서 구전되는 내용과 그렇지만 현재는 행위가 없다는 사실이다. 언제부터 시작 되었으며 어느 시기에 와서 단절되었는지 자료를 통해서 찾는 것은 힘들다. 이처럼 문헌자료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구비전승 되는 소재를 활용하는 것도 어쩌면 마을 주민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2001년 당시의 행사 연출자에 따르면 심사과정에서 '고증에 대한 문제를 심사위원들로 부터 지적 받았었다. 역사적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는 없어 이전 한라문화제 행사에도 똑같은 소재가 있었기에 변용했을 따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대목은 눈여겨봐야 한다.

동일한 주제가 고증에 따른 문제점을 지닌 채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용되면서 불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당연한 사실로 고착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희귀한 전통놀이라는 명분으로 이후에도 시연과 재공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잘못된 문화현상을 남기게 된다. 때문에 역사적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 사료 및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증을 반드시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이처럼 그동안의 탐라문화제 체계에서는 역사소재에 대한 고증 방안이 올바르게 작동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칫 역사문화의 계승·창조 행위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내리고 이를 문화적 형태로 전파하는 경우 올바른 역사인식과 건강한 문화풍토 정착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를 갖고 있다.

이 사례는 고증의 문제와 관련해서 사후에 문제가 지적되었던 경우이다. 첫 회 이후 시연과 새로운 변용까지 십 수 년이 흐른 다음 마지막 행사 때에 이르

리야 문제가 지적되었다. 해당 시기에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을지라도 체계적인 고증 시스템이 존재했었다면 사전에 검증하고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각개의 역사 소재에 대한 고증 자문의 방식은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확실하게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IV. 탐라문화제의 역사 소재 한계성과 강화방안

1. 역사 소재 활용의 한계성

탐라문화제의 역사소재 활용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역사소재 활용에 따른 문제점과 한계성을 근거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제3장에서 부분별 검토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표 12〉 탐라문화제에 활용된 역사 소재의 한계성

역사소재	활용의 한계성
삼별초의 항쟁	- 역사해석에 따른 지방사적 관점과 일반적 관점 사이에서 중점을 두는 문제 - 역사고증의 문제
조천만세운동	- 마을의 정체성 및 역사교육의 방법 - 부정적 역할의 역사소재를 현대적으로 수용하는 방안 - 인접 역사소재를 차용할 때 중심 설정의 문제
세화리해녀항쟁	- 고증의 문제 - 소재의 외면과 내면 사이에서 중점 활용의 문제 - 역사적 사건의 종합적 이해와 소재 활용의 부분적 수용
서련판관 및 김녕사굴	- 고증의 문제 - 정치적 목적성과 계몽형 활용의 문제
만덕제와 만덕봉사상	- 고증의 철저와 현재적 의미의 확대에 따른 문제 - 역사적 가치의 정신계승 범위 축소 - 소재의 독립적 활용의 문제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 전문기관 연구 성과의 대중적 접합방식 - 긍정적 교육 소재 개발
불싸움놀이	- 구비전승 소재의 검증문제 - 반복적 차용에 따른 고증체계의 문제

자료 : 앞장(제3장)의 분석 결과를 연구자 재구성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역사고증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역사소재의 재해석의 문제, 선택적 수용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다음으로는 교육적 또는 계몽적 목적성을 지닌 소재 활용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역사소재 개발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인 사례가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역사고증 측면의 문제점에서 한계성을 따져보고 역사소재의 교육·체험학습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역사소재 개발 측면의 문제로 구분하여 탐라문화제에 활용된 역사소재의 한계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역사적 고증 측면의 문제점

탐라문화제는 제4회 행사부터 경연 형식의 문화프로그램이 대거 선보이면서 소위 '체육문화', '운동장문화제'의 형식으로 시작되었다. 행사에는 걸궁, 씨름, 민속경연 등이 포함되었다. 표면적으로 민간주도의 행사로 탈바꿈하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는 행정력을 동원한 집단형 과시형으로 분류되는 관주도, 정부의 주도성이 전체 행사를 좌우하였다.

그 결과 양산된 것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대규모 마을 인원이 출연하는 민속경연이다. 이는 경연을 통하여 마을간, 읍면간의 경쟁력을 고양하여 축제 참여도를 높이는 한편, 경연으로 진행되었기에 순위에 차등을 두어 시상함으로써 고증보다는 보여주는 결과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시·동원형의 민속경연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고증의 결핍이 손쉬운 대중동원과 집단화를 통한 문화제로 관성화되어 비록 탐라문화제가 오랜 연륜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발전을 위해 나아가는 길목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탐라문화제에 출품된 공연물들에 대한 앞 장의 분석에서도 드러났듯이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때 좀 더 치밀한 연구와 역사적 고증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그동안 탐라문화제의 행사를 분석해보면 역사 소재에 대한 고증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앞장의 분석 된 사례에서 각각의 사례는 나름대로 문헌기록 등을 통

해서 고증 작업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천 만세운동’에서 보여주는 지역의 역사유적인 환해장성과의 연계성의 문제, ‘세화리해녀항쟁’에서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의 부분적 수용의 문제를 거론 할 수가 있다. ‘불싸움놀이’ 역사소재는 단순하게 내용상의 고증문제뿐만 아니라 고증의 합리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고증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반복적인 차용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이다.

고증과 함께 역사해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장에서 분석을 시도한 대부분의 사례가 자의적 해석이 강하게 표출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서련관관 및 김녕사굴’의 사례처럼 정치적 의도가 전면에 나서면서 계몽주의적 성향으로도 변화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사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특정 이해집단의 목적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 지역주민들에게는 환영 받지 못하고 있다. 만덕제의 사례는 고증이 잘되었더라도 정신계승의 가치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인물이 지녔던 정신적 가치가 현대에 와서 부분적으로 계승되는 문제를 엿볼 수 있었다.

대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을 소재로서 차용하고 있지만 적용은 주관성이 높다는 부분이다. 문화행위가 상상력을 기초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함은 인정되지만 그 또한 역사적 사실 관계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재해석과 변용의 문제는 바른 역사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문화의 과정으로 나갈 때 유익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역사소재를 적극 도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전에 철저한 고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역사소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통문화의 계승·창조 행위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가 전파되는 경우 지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돈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2) 교육·체험학습 측면의 문제점

탐라문화제의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교육·체험학습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역축제가 가지는 효과가 경제·정치·사회문화·교육적 효과 등 광범위하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경제적인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 점은 역사문화축제의 본질을 흐릴 위험을 안고 있다. 즉, 역사문화축제가 지니는 지역의 고유한 특징과 문화가치를 평가절하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역사문화축제는 사회문화적, 교육적 측면 등 다양한 부문에 늘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⁸⁰⁾

특히 개최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역사문화축제가 가지는 교육적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간추려보면, 첫째, 역사문화축제의 주제 및 성격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교육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역사문화축제는 그 본질적 특성만으로도 참여자에게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축제는 미래의 잠재적인 문화예술인 및 문화적 관람객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⁸¹⁾

또 오늘날에는 단순히 지식 습득을 통한 간접 체험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던 역사, 문화 및 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직접 현장에서 재확인하고 직접 체험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향상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취득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행해지고 있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축제의 종류는 더욱 다양해지고 개최빈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축제참가자들은 축제장에 앉아서 그저 예술공연이나 전시물들을 구경만 하는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참여형태를 벗어나 좀 더 역동성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으며, 직접체험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지역문화축제는 잠재 문화 소비자인 청소년층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평소 문화예술을 체험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도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등 교육적 역할을 담당한다.⁸²⁾

80) 김지은, 앞의 논문, 2006, p.22.

81) 김철원·이석호,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2001. p.13.

그러나 탐라문화제는 초기 학생들도 참여하는 문예창작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출발했다가 회를 거듭할수록 집단 동원형 경연대회 형태로 변화하면서 그 순수 교육적 측면이 탈색되었을 뿐 아니라, 역사적 고증이 부재한 역사관련 프로그램의 소재 도입 등 교육적으로 오히려 역기능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탐라문화제의 역사소재 중에서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과 같은 유형은 전문기관과 전문 지식을 대중적 기호에 맞게 바꾸어 교육적 효과를 높였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만덕제와 만덕봉사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김만덕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청소년기의 성찰 과정에 대한 외면과 일부 기관장 중심의 행사 배열, '세화리해녀항쟁'처럼 소재를 수용하는 방식이 사건이 지니는 다양성 중에서 일부의 관점만 유지시키려는 경향, '삼별초의 항쟁'이 갖는 지역적 관점이나 보편적 관점이나에 따른 해석의 차이 등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역사적 사실 해석과 현재적 수용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자적 입장에서는 역사인식에 많은 차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어떤 관점에 따르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창작 과정에 참가하는 학생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역사적 성찰과 이해는 사뭇 다르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 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함께 배우면서 즐길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행사는 학생들 눈높이에서 탐색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적 오류만 전문가의 조언을 받도록 했을 때 준비과정의 교육적 효과와 현장에서의 공유를 통한 교육체험이 통합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탐라문화제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대에게 어떻게 일깨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82) 이상률,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13권, 광주대학교경상복지연구소, 2004, p.364.

3) 역사소재 개발 측면의 문제점

이미 살펴보았듯이 탐라문화제에서는 역사소재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전통민속의 공연형 프로그램의 도입은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는 면에서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는 부문이다. 다소 무거운 주제로 인식될 수 있는 역사소재를 다채로운 예술적 형태로 승화함으로써 이해와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전승 또는 창작 등에 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역사소재의 사실적 측면에만 얽매인 채 그 소재가 지니고 있는 의미적 풍요로움이나 관련 요소들과의 관계 등을 살리지 못하여 축제프로그램으로서의 흥미와 가치를 살리지 못할 경우, 그 역사적 사실은 역사문화축제의 소재로서 활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역사소재의 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역사소재의 발굴과 함께 기존에 활용되었던 역사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역사문화축제를 더욱 활성화하고 유익한 것으로 만들 뿐 아니라, 지역의 고유성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탐라문화제에 차용된 역사문화 소재들이나 민속공연물의 소재 대부분은 다양성이나 창작을 통한 탄력적 변용에는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적은 일견 역사적 고증작업의 필요성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역사적 고증작업을 통해 이런 다양성을 획득해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탐라문화제 본 행사의 주요 테마로 자리하고 있는 ‘제주역사축제’의 내용이 유적 답사나 학술세미나에 치중되어 왔다는 점은 다양한 역사소재의 발굴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탐라문화가 타 지역 문화와 차별성을 지닌 독창적인 문화라면 그 활용도 역시 창의적이어야 하며, 그 결과 더욱더 풍요로워진 문화가 창출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독창성과 풍요로움 없이 감동은 없다는 의미에서, 축제요소로서의 역사소재가 고립된 역사적 사실만을 고집한 채 풍요로움을 잃는다면 자칫 목적론적 희생물로 전락할 우려만 높아질 뿐이다.

분석사례 가운데 ‘만덕제와 만덕봉사상’의 예에서 나타났듯이 독립적 요소가 강한 역사 소재의 경우는 분리시켜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김만덕이라는 인물의 삶의 과정에서 드러난 정신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도입하여 연계된 행사와 묶어내고 독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은 분석 과정에서 나왔듯이 새롭게 강조되어 탐라 문화제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중심 행사로 끌어 올려야 될 부분은 내용적 보강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역사소재 활용의 빈도수를 높여내고 다양성을 전제로 역사소재가 활용되는 축제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만들어낼 때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탐라문화제의 역사성 강화 방안

탐라문화제가 그 개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성공적인 역사문화축제로, 나아가 우리나라 축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사고증, 교육, 역사소재 개발 등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야 하며, 앞으로 한계점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탐라문화제의 내용을 보완해 가면서 내실을 기한다면 지역민의 기대와 주최자의 의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역사성에 충실한 축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탐라문화제 역사성 강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역사고증 체계 도입 및 지원

탐라문화는 제주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만큼 문화축제를 계기로 탐라문화의 풍요로움과 차별성을 드러내고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 소재가 문화축제에 도입될 경

우, 오히려 정체성과 고유성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축제로서의 탐라 문화제는 당연히 역사적인 고증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검증된 고증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재현되어야 한다.

탐라문화제를 위한 모든 노력들은 지역적인 공감대와 지역민의 동질성 확보, 지역 정체성 확립 등의 대전제, 즉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재인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상누각과 같은 일회적인 재현과 전통의 내면적 계승이 아닌 외형만의 확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특성을 토대로 탐라문화제를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역사적 고증이 없는 프로그램 운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고증을 통해 역사소재가 도입될 때 비로소 그 의의와 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고증을 위해서는 우선 탐라문화제 개최조직 내에 고증전담기구를 두거나 외부 전문가단체의 지원을 얻는 등 고증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고증작업을 맡아 할 전문 인력의 부족이나 일회성에 그치는 자료조사는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탐라문화제 주요 프로그램들이 고증을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여 잘못된 지식을 사실로 인식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축제를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행사 전반에 걸친 역사소재의 역사적 확인 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나 단체의 마련으로 기존의 고증작업에 대한 작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소재의 발굴과 정리를 위한 기초를 확립해야 한다.

자료 정리의 중요성은 지역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그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영역별로 철저하게 조사·수집·정리되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문화특성과 상징성(정체성)이 점검되고, 그 후에 자원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남아 있는 한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의 기준에서 철저히 검증되었나, 방향이 과연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나, 지역민들의 요구와 인식에 토대한 것인가의 과제를 남기게 된다.⁸³⁾

83) 이해준,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현재와 미래」, 『지역사연구와 문화콘텐츠 개발』,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3, P.14.

이처럼 고증 전달기구의 구성은 역사문화소재의 자료선택과 개발, 연구의 체계화를 위해 필요하며, 나아가 고증과 연구를 통한 자료들과 탐라문화제 관련 자료들의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고증작업과 마찬가지로 고증을 통해 얻은 내용의 정리 또한 중요하다.

또한 전달기구나 단체 등 고증 체계의 구축·운영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증분야에 전념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행사준비는 불과 개최 몇 개월 전부터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등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고증 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탐라문화제의 개선과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기존행사와 차별화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로 이어져 역사·문화 소재에 대한 발굴과 함께 고증정리의 정확성, 전통과 현대문화의 연계 고리로 작용하여 탐라문화제가 명실상부하게 역사문화축제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증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예산편성 등 행정지원의 필요성은 축제 개최목적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정리 등에 필요할 경우 행정적 편의제공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고증작업 결과의 사회적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평가를 위한 학술행사 마련 등도 필요하다.

2) 역사소재의 교육효과 지향

21세기 들어 세계화의 흐름과 동시에 급속히 부상한 지방화·지역화를 구현코자 할 때 지역의 정체성은 국가·민족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지역적 특수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역사상 자기 지역에서 형성된 문화에 대한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도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과 함께 지역 문화의 대변자로서의 역사문화축제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예전과 비교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

린 과정 속에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고 배울 수 있는 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역사문화축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유명한 관광명소들이나 지역축제들 대부분이 역사자원을 부각시켜 관광지로 발전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문화자원은 지역문화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소재로 활용하여 열리는 역사문화축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역사자원의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역사적 의미나 교육적 측면에서 인간의 삶의 변화와 흐름을 보여주는 산물로서 교육적으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명확히 하여 성숙·발전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의 바탕이 되었던 탐라문화를 필두로 시대를 거듭하며 유지해온 전통과 민속문화유산을 탐구하여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기초가 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과 애郷심을 높이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바로 알아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역축제가 교육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탐라문화제 행사 구성에 있어 학생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 이해는 물론, 배움의 축제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교육적 내용을 보다 더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팸플릿 제작 수준을 넘어서 도입된 역사소재에 대한 역사문화교육 책자 형태로 발간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는 일차적 방법과 단일 역사소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입체적으로 역사를 소개하고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 학생 등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동원되어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에 국한하지 않고 동일 프로그램에 관람객들이 함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즉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되는, 또는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역사소재에 대한 이해는 물론 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역사소재의 개발·도입

지역의 고유한 개성과 매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자연적, 인공적, 역사적, 전통적, 인적자원 등 다양한 잠재자원 중에서 지역적 공감대와 이미지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역사문화축제 소재로 활용하여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탐라문화제를 두고 논한다면, 새로운 역사소재의 개발·도입은 그동안 주제에 식상해진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른 측면에서 탐라문화제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탐라문화제 자체를 풍요롭게 함으로써 행사 취지 달성에 순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의 특성을 보다 강화하는 기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하게 된다.

역사소재의 개발방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새로운 역사소재의 발굴이다. 지금까지 주변적인 요소로 간주되었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일반에 소개되지 않았던 역사소재들 가운데 축제프로그램화가 가능한 것들을 발굴해내는 작업이다. 다른 하나는, 익히 알려진 역사소재나 기존에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온 역사소재 가운데 내용적 확대나 현대적 변용 등이 가능한 역사소재를 탐색하는 것이다.

양자는 공히 역사문화축제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경이로움과 신선함 그리고 현대적 감각을 통한 예술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례로, 탐라문화제라는 명칭에 얽매어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의 여타 문화예술행사와 연계시키는 현대적 감각을 살리지 못한다면 일부에게는 탐라문화제가 여전히 고루한 과거지향적 행사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렇듯 새로운 기재를 동원한 역사소재의 소개는 보다 쉽고 재미있게 그 역사소재를 이해시킬 수 있고 그 전달의 폭도 훨씬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역사소재의 개발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고증전담기구 등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지역민을 상대로 한 행사의 일환으로 사전에 공모를 전개함으로써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재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역사연구자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사와 문화예술의 접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역사문화 소재가 지역민으로 하여금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에 대한 향수와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지방사 연구와 지역축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제주지역 축제에 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된 성과도 없으면서 연구를 진행한 것은 탐라문화제라는 문화축제의 공간에서 역사소재가 지역의 정체성과는 어떻게 조응해야 하는지를 시론적으로나마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연구 과정을 돌아보면, 제2장에서는 탐라문화제의 변천과 역사소재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탐라문화제의 변천과정은 크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단계에 속하는 제주예술제 시기(1962~1964년)는, 탐라문화제의 출발인 제주예술제가 5·16군사쿠데타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한계를 안고 출범한다. 이와 함께 단절되었던 제주지역 예술활동의 맥을 이어나간다는 성과도 지니고 있다. 이 같은 외적 요인은 내용적 측면과도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한라문화제 시기(1965~2001년) 가운데서 초기에 해당하는 1960년대는 순수예술분야의 행사라는 제주예술제의 기본적인 흐름에 민속공연 등 전통소재가 도입된다. 1970년대는 호국유산과 민족문화유산의 복원을 시도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한라문화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민간신앙 등 전통연희를 행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1980년대의 흐름은 대부분의 행사가 고정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단위 행사가 제주에서 개최될 때 한라문화제는 부대행사로 진행되면서 자기 주도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1990년대의 시기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라 이때부터 예총제주도지회가 단독으로 행사를 주최하게 된다. 민간주도의 축제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3단계에 속하는 탐라문화제 시기(2002~2006년)는 '한라'라는 추상적 개념에

서 '탐라'라는 역사적 개념을 축제명칭에 도입하면서 역사성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한다. 중심행사 또는 상징행사와 관련해서 1970년대 부터 평가 반성 된 내용이 여전히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즉 백화점식 종합축제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탐라문화제에 활용된 역사소재 사례를 분석하여 한계와 성과를 찾아보았다. 역사적 사건과 관련하여 '삼별초의 항쟁'은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할 때 지방사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사이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재해석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조천만세운동'의 사례는 사건 소재와 지역의 역사유적을 연계시켜 확대 재해석을 하는 경우, 모든 유물과 유적이 순기능만을 수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과 유적간의 관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세화리해녀항쟁' 사례 분석이 시사하는 것은 다양한 역사의 의미를 지닌 사건은 개개의 층위에 대해서 선택적 수용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분석대상 중에서 인물과 관련해서는 '만덕제와 만덕봉사상'처럼 고증의 문제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김만덕과 그녀가 추구했던 정신적 가치의 계승 및 확대재생산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서련판관 및 김녕사굴'의 사례분석은 역사적 사건이 정치적 목적성을 띤 계몽형으로 수용 되어 나타날 때는 지역민들에게 진정성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다.

사건과 인물의 유형은 아니지만 전문 고고학 발굴기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탐라 선사인들의 생활체험'은 학문적 연구와 대중적 관심이 교차하며 의미가 증폭되는 사례로서 새로운 역사소재 발굴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불싸움놀이'유형과 같이 내용적인 면에서는 전통민속 소재지만 도입된 배경이 역사적 사실성 여부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소재의 반복적인 활용은 부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강요하게 된다.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대부분의 사례가 고증이 미비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재해석의 부분에서 역사적 사실을 주관적 또는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또 다른 문제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사실이 부분적인 측면만 강조되어 오히려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묻어버리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도출되었다.

마지막장에서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탐라문화제의 역사소재 한계성을 검토한 뒤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고증 체계도입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일회적인 고증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증을 담당하기 위하여 탐라문화제 조직 내에 고증 전담기구를 두거나 전문가단체의 지원을 얻는 등 고증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역사소재의 교육효과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통과 역사문화유산을 탐구하는 일이 기초가 된다. 따라서 도입된 역사소재에 대한 자료 제공과 함께 학생층은 동원 대상이 아닌 주체적 참여자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역사소재의 개발과 도입이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만덕제와 만덕봉사상'처럼 독립적 요소가 강한 부분은 오히려 내용을 보완하고 분화시켜내어 탐라문화제와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임을 제기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스스로에게 축제가 과연 역사학에서의 연구주제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하였다. 그때마다 연구 주제로서 무리가 없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끌어 왔지만, 지금의 생각은 처음의 문제제기인 시론적 연구를 넘어 지방사의 관점에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불충분과 분석 및 논거의 미진함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미숙한 부분은 역사축제에서 드러나는 지방사와 지방의 정체성은 어떤 상관성을 지니고 있는지, 역사소재의 현대적 변용은 어떤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올바른지 등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에 의해 수정·보완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고창석외,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김병인,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민속원, 2004.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만덕기념사업회, 『은광연세』, 2007.
- 이승수, 『새로운 축제의 창조와 전통축제의 변용』, 민속원, 2003.
- 정근식 편저, 『축제·민주주의·지역 활성화』, 새길, 1999.
- 제주도, 『제주도지』 제7권, 2006.
- 제주도, 『제주의 문화유적』, 1997.
- 제주도, 『제주항일독립운동사』, 1996.
- 제주도·(사)제주민예총, 『제주의 역사와 문화2』, 2001.
- 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1995.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제주도지회, 『濟州文化藝術白書』, 1988.

2. 논문

- 강창화, 「선사시대」, 『제주도지』 제2권, 제주도, 2006.
-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1』, 학연문화사, 1998.
- 김동만, 「역사재현에 있어 영상자료의 재해석과 활용에 관한연구」, 세종대학교 영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김동진, 「제주 지방사 연구현황과 과제」, 『韓國地方史 研究의 現況과 課題』, 경인문화사, 2000.
- 김동진, 「제주인의 3·1운동」, 『제주지방독립운동사학술회의』, 제주도사연구회, 1995.

- 김병인, 「영암과 왕인문화축제」, 『역사의 지역축제적 재해석』, 민속원, 2004.
- 김병인, 「지역축제에 활용된 역사적 소재에 관한 재검토 : <홍길동 축제>와 영암(왕인 문화축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7-2, 역사문화학회, 2004.
- 김석범, 「지역축제의 특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지은, 「백제문화제의 역사문화적 특성 강화방안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창민, 「문화의 지배와 지배의 문화화-한라문화제의 사례」, 『문화과학』 통권 제7호, 1995년 봄호.
- 김충남, 「삼별초난의 기인에 대한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2.
- 김찬흡, 「제주 항일운동」, 『제주도지』 제2권, 제주도, 2006.
- 나승만, 「전통 축제의 현대적 전환 : 그 맥락과 쟁점-진도 영등축제를 중심으로」, 『축제·민 주주의·지역 활성화』, 새길, 1999.
- 나종우, 「고려무인 정권의 몰락과 삼별초의 천도항몽」, 『원광사학』, 원광대학교 사학회, 1986.
- 박찬식, 「제주 해녀의 항일운동」,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 제주해녀항일투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 변종현, 「김만덕의 삶을 통해 본 정신적 가치의 탐색」, 『은광연세』, (사)김만덕기념사업회, 2007.
- 신왕근, 「한라문화제 발전 방향에 관한연구」,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2000.
- 이상률, 「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연구』 13권, 광주대학교 경상복지연구소, 2004.
- 이주영, 「百濟文化祭 實態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한남대학교 사회문화 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청규, 「탐라(국)형성 전후의 제주도」,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사)제주민예총, 2001.
- 이해준, 「지역문화자원 활용의 현재와 미래」, 『지역사연구와 문화콘텐츠 개발』, (사)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2003.
- 에르테니 바테르, 「원·고려 지배세력 관계의 성격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논문, 2006.
- 정근식, 「해양축제의 실태와 가능성-장보고 축제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 문화』 5-1, 역사문화학회, 2002.
- 정종수, 「지역 문화 축제의 현황과 문제점」, 『역사민속학』 제7호, 민속원, 1998.
- 정호기, 「지역축제의 활성화와 문화정치」, 『축제, 민주주의, 지역 활성화』, 새길, 2004.
- 조성윤, 「19세기 제주도의 國家祭祀」, 『19세기 濟州社會 研究』, 一志社, 1997.

3. 기타 자료

-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 『정읍 지역축제의 개선방안』, 2003.
- (사)전북전통문화연구소, 『한국지역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3.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 탐라선사인 생활체험 자료집, 2002.
- 문무병, 『탐라국입춘굿놀이』,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문화관광부, 『2005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2005.
- 제주도,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2005.
- 제주시, 2002 탐라국입춘굿놀이 학술세미나 자료집 『지역축제발전방향』, 2002.
- 제주시, 2003 탐라국입춘굿놀이 학술세미나 자료집 『탐라국입춘굿놀이 발전방향』, 2003.
-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제주도사연구회, 『탐라사 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1997.
- 제주신문, 1965년 11월 27·29일자
- 제주신보, 1962년 5월 18일자
- 제주일보, 2002년 8월 6일자
-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중·장기 발전계획』, 2004.